

글로벌 독재자들도 저출산에 '골머리' 4

경제 전문가 70% "韓, 장기간 저성장 지속" 5

코스피(12일) 2535.27 (+9.91P) 코스닥 839.53 (+4.28P)  
환율(달러당 원화) 1314.00 (-2.5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446% (-0.034%P)

## 금융권 수장 인선 '내부장벽' 없앤다

### 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앞으로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이 정교하고 투명하게 바뀐다.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3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외부 출신 후보군에도 미리 비상근 직위를 줘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CEO 선임 시 내부후보자에게 유리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차기 회장 육성 프로그램 성격의 부회장직도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그간 지적해 온 '깜깜이 경영승계', '거수기 이사회' 등 불합리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면

먼저 금융지주·은행 CEO 선임 기간과 절차가 길어진다. 금감원이 국내 8개 금융지주 CEO 선임·연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승계 절차 개시 후 최종 후보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45일에 불과했다. 쇼트리스트(2차 후보군) 확정에서 최종후보 결정까지는 대체로 1회의 인터뷰나 발표를 통해 평균 11일 소요됐다. 이 때문에 평가·검증 기간이 짧고 평가·검증의 다양성·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소 전임 CEO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시작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후 운영 과정을 살펴가면서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1차 후보군을 추리는 통리스트 관리는 최소 1년 전부터 해야 한다. 또한,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종합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 후보와 외부 후보 간 불공평한 관행도 없앤다.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도 사전에 CEO 후보군에 포함해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를 물색한 후 인사부서 정기 평가, 이사회 간담회 초청 등을 통해 검증

임기만료 3개월 전 승계절차 개시 외부 후보자에 비상근 직위 부여 내·외부 후보자 간 공정성 강화 DGB금융지주, 업계 첫 적용 전망

### 부동산 PF 관련 구조조정 암시도

하라는 것이다. 가령, 내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한다.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도 제공해 기술적인 운동장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내·외부 후보자 간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지주 내 부회장직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후보자의 차기 CEO 육성 프로그램인 부회장직 유지가 경영승계에 있어 폐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이사회 의장들에게 전달했고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CEO 선임 절차에 관한 모범관행은 현재 CEO 선임 레이스에 돌입한 DGB금융지주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현 회장이나 행장 등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들러리' 형태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DGB금융도 이해할 것으로 본다"며 "외부 후보군 물색 등 향후 절차에 모범관행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시장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도 암시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13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부실 '경고등'이 커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22대 총선 레이스 스타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조현호 기자 hyunho@

## 추경호 "물가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검토 안해 이달 물가 상승률 소폭 하향 전망 12년 묵인 서비스법 국회통과 만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추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지만, 현재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추부총리의 설명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까지 휘발유와 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

세에 각각 25%, 37% 인가가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고,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이 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 원에서 30억~5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경제 성장률 1.4%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0.9%, 하반기는 그 두 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7·8월에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즈음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 상승 폭이 조금 더 커졌다"며 "이를 고려할 때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3%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2월에는 11월(3.3%)보다 소폭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추부총리는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 때 다 같이 서발법 통과를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하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서발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한국의 골드만삭스' 미래에셋... '인도 10위' 증권사 품었다

### 4800억에 '쉐어칸' 주식매매계약

박현주(사진)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인도 현지 10위 증권사 쉐어칸(Sharkhan Limited)을 인수한다.

12일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SA와 쉐어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매입 금액은 약 300억 루피(약 4800억 원) 수준이다. ▶관련기사 16면

2018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5년 만에 국내 최초의 현지 기업 인수에 성공한 것이다.

현지 우수기업의 인수합병에 기반해 각 지역 특화 전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영토를 꾸준히 확장해 온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인수로 K-금융 수출의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됐다는 평



가다. 쉐어칸은 2000년 설립된 인도 10위 증권사로 임직원 수는 3500여 명이고, 총계좌는 약 300만 개다. 인도 전역에 130여 개 지점과 4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외부 전문 투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2100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쉐어칸 인수로 장기 성장

중인 인도 증권업계를 선점할 기회를 잡았다"며 "인수 후 현지 유일한 외국계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그룹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년 설립된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인 인도 내에서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로, 올해 기준 56개 펀드, 총 24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인도 내 9위의 운용사로 성장했다. 해외 영토 확장은 미래에셋그룹 창업

주인 박 회장의 혁신과 도전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박 회장은 2018년 5월 미래에셋대우 회장직에서 물러나 글로벌 전략가(GSO·Global Strategy Officer)로 취임, 해외 사업 확장을 진두지휘해 해외법인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었다. 2018년 미국 혁신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선두기업 글로벌X를 인수한 데 이어 2022년 호주 운용사 글로벌X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ETF 시장조성 전문회사 GHCO를 인수했다. 이것이 그룹의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됐다. 정희인 기자 hihello@

# “LH 공공주택사업, 독점 막고 민간 개방… 카르텔 깬다”

선정권한 없애고 시장경쟁 전환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 추가  
품질·안전·혁신 뒤풀어 ‘도태’  
퇴직자 심사강화·전관입찰 제한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LH 단독 시행 또는 민간 건설사와의 공동 시행이었던 기존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입주자 만족도

**LH 혁신방안** ※ 출처: 국토교통부

-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
  - 개선 민간건설사단독시행 유형 추가 → LH 영향력 배제, 자체 브랜드 공급
- LH 권한 대폭 축소,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 원천차단
  - 현행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 이관
  - 개선 설계·시공 → 조달청/감리 → 국토안전관리원(법률개정 전까지 조달청)
    -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
    -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폭 강화
- LH 공공주택 안전품질 검증 강화, 부실업체 퇴출
  - 착공 전 구조설계 외부 전문가 검증
  -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 위반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해피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향후 공급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면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의 시장 요구에 노출되고 혁신에 뒤처지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금까지 LH는 공공주택사업 공급량의 72%를 차지했다. 나머지 28%는 지방

공사에서 담당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

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

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심사대상자는 50% 수준으로 늘어나고 대상업체는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증가한다.

전관 업체의 입찰도 제한된다. 지금은 5년 이내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급 이상 전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받는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 “부실시공 줄겠지만… 비용·특혜시비 계속될 것”

‘LH 혁신안’ 전문가 의견  
권한 분산·품질 경쟁 긍정적 효과  
조달청·국토안전원 新카르텔 우려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건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

택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독점적 구조에서 경쟁 구도로 바뀌는 동시에 LH가 개별사업을 관리할 여력이 확보된다. 안전·품질 검증이 특정 집단이나 이권에 휘둘릴 가능성은 낮아진다.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중됐던 권한과 역할을 분산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역할을 확대하면 철근 누락, 실효성이 낮은 검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혁신안은 취지에 부합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가 참여 확대는 결국 비용과 절차 증가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의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독점을 허문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민간 단독 시행은 소수 대기업으로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르텔 혁파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 교수는 “설계·시공·감리업체 선

정 권한 이관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단지 주체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3~4년 후에는 조달청 카르텔, 국토안전관리원 카르텔이 LH 카르텔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전관 재취업업체의 LH 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관의 영향력이 시장질서를 해친다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노(No) 전관’이란 식은 곤란하다”며 “현실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닌 만큼 재취업 전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

Beyond Korea No.1<sup>+</sup>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대표 시험인증기관

## 산업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기술 「성장」을 선도하는 ktl

ESG경영을 실천하는 KTL은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 표준과 인증 기준에 따라 국민 안전과 기업 지원을 뒷받침 하는 든든한 공공 종합 시험인증기관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 스마트제조/ 협동로봇
- IT융합분야 / 디지털 ID
- 스마트홈/ IoT
- 차세대 통신(5G, 6G)
- 소프트웨어·보안

**저탄소 기술 성장**

- 미래모빌리티/전기차 충전기
- 자율주행/ 기능안전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 중대형 이차전지
- 스마트그린산업인프라
- 청정수소/ 차세대 핵심 소재

**산업기술·기업지원 분야**

- 산업 전문분야 시험평가 및 인증서비스
- 전기안전, 기계/시스템, 우주·항공, 국방·조선
- 바이오로헬스, 환경기술, 종합교정솔루션 등
- 국가 시험평가기술 연구개발
- 수출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
- KTL 아카데미 기술교육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시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연구개발목적기관

UNESCO 유네스코 지원 설립 Since 1966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 ‘깜깜이 승계’ 부회장직 폐지 가능성... 이사회는 독립성 강화

## 이복현·금융지주 이사회 간담회

금융당국이 12일 내놓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 선정 과정에서 내부와 외부 후보자 간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지주가 운영 중인 부회장직이 외부 후보자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장 승계 핵심 코스로 거론되는 부회장직이 ‘지배구조 세습’을 단단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2인자’ 자리를 유지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CEO 선임 과정에서 내·외부 후보자 간 공평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금융지주사가 운영 중인 부회장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원장은 “부회장 제도가 과거 특정 회장이 쉐플 연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제도는 맞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회장 제도가 내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필요한 신인 발탁

KB·하나 두 곳만 부회장직 운영 이사회 의장도 폐쇄적 운영 공감 사외이사 지원 독립조직으로 설치 “혼란 방지 등 실효성 있을 것”

이나 외부의 경쟁자 물색을 차단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주 이사회 의장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의 부회장직은 지주 핵심전략 총괄 책임자인 동시에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됐다. 계열사 CEO로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후 인정받으면 임기가 끝나고 부회장직으로 승진하는 방식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중 현재 부회장직을 운영하는 곳은 KB금융과 하나금융 두 곳이다. KB금융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양종희·허인·이동철 등 3명의 부회장을 선임했다. 양 부회장의 회장 취임과 동시에 나머지 2명의 부회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현재는 모두 공

##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주요 내용

※ 출처: 금융감독원

<b>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가 아닌 이사회 산하에 독립조직으로 설치</li> <li>-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 관여 및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운영</li> </ul>
<b>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li> <li>- 외부 후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 방식 활용해 공정한 평가 기회 제공</li> </ul>
<b>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적합성·독립성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li> <li>- 구성원의 정보를 표·그림 등으로 도식화해 사외이사의 직군, 분야, 성별 등</li> </ul>
<b>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O 선정 과정 포함 승계계획 문서화 및 자격·평가요건 공개</li> <li>- 적정 규모 CEO 후보군 상시 관리 및 연 1회 이상 주기적 평가</li> </ul>

석이다. 하나금융은 이은형 부회장과 박성호 하나은행장, 강성목 하나증권 사장 등 3인 부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3인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KB금융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고 경영진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부회장직 존폐와 관련해서는 연말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연말 인사까지 상

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한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 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

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뒤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사외이사 임기가 현재 획일적인 ‘2+1’ 제를 택해 동일 연도에 임기만료가 집중되고 임기 연장 여부가 경영진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모범관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경영승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산분리에 의해 금융사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범관행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융당국이 CEO 선임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지주사 등 금융사의 CEO 선임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sonhjung 기자 sonhj1220@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부동산PF 건설·금융 시장원칙에 따라 조정 불가피”

134조 부실 ‘경고등’ 위기감 커져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 견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PF 리스크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의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PF로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손실 부담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의 3분기 PF 연체율 증가와 관련해 “작년 단기자금 시장 불안정 시점을 전후해 시스템 요인 내지 외부 효과로서 작동 가능한 시장 실패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검했다”며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PF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사업장의 특성들을 파악해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나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점검해 왔던 것들이 저희가 해왔던 노력이고 상대적으로 그 덕분에 큰 탈 없이 진행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잠재해 있다고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PF로 인한 손실 등 조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자구노력이나 손실 부담을 전제한 자기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PF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갖고 있는 30조 원에 달하는 시장조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응하겠으나, 원칙과 시장 논리에 따라 특정 건물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대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추가적인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의 부동산 건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지원 등은 관계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건의를 드릴 예정”이라며 “금융 사이드만으로도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시점까지 금융당국이 PF 정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금융시장, 거시경제 상황 자체의 요소도 고려해야겠지만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받는 다양한 금융·비금융의 심리적 불안 요인도 고려하고 있다”며 “대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joku@



**KG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 나도 유니콘?!

“ 몸속에 내재된 성장 DNA를 찾아라! ”

# 소득 있어도 누구나... 교육·건강·주거 '국가돌봄' 받는다

## 전국민 사회서비스 계획 발표

복지부, 1차 2024~2028년 목표 청장년·중산층 등 새 수요 포함 부담차등 전제로 이용제한 폐지 돌봄 인증제도 도입 "품질 강화" 규제 합리화로 창업·복지 지원

정부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기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방향을 담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산한다.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내용

#### 다양한 서비스 확충

- 청·장년, 중산층 등 새로운 수요까지 포함한 전 국민 서비스 제공
- 돌봄+주거+건강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만족도 중심 서비스 평가 실시
- 제공인력 역량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창업 지원 등 서비스 공급자 지원대책 마련

#### 공급혁신 기반 조성

-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 스마트복지시설 등 복지기술 현장활용 지원
- 통계&법 체계 정비 및 강화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공급 부족지역에 거점제공기관을 제공하고 출장비·운영비를 지원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한다.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도 조사·분석해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개발한다.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는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

도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되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창업 지원, 제공기관 규모화·조직화 지원, 복지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촉진도 병행한다. 제도 기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 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7만4963개) 중 절반 이상(59.4%)은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시·군·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기관의 58.9%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은 사물인터넷(IoT) 14.1%, 로봇 5.4%, 인공지능(AI) 9.2%, 클라우드 컴퓨팅 12.9%에 머물렀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에 반영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두 집 걸러 '1인가구' ... 취약계층 73% 차지

지난해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셈으로, 해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6000가구(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1~4인 이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3.4%에서 2022년 34.5%로 1.1%포인트(p) 늘었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1인 가구가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0세 이상(18.6%), 30대(17.3%), 60대(16.7%) 등 순이었다. 29세 이하 비중은 전년보다 0.6%p 줄고, 70세 이상은 0.5%p 늘었는데 청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독거가구 35% '역대 최대'

10명 중 4명 서울·경기 거주 별이 3010만원·빚 3651만원 29세 이하 청년 19.2% 최다 70세 이상 고령층 18.6% 순

지역별로는 경기도(21.8%)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20.8%)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거주 종류는 단독주택 41.0%, 아파트 34.0%, 연립·다세대 11.7% 순이었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주거 비중이 단독주택은 높은 반면, 아파트는 낮았다.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0.9%로 전체 가구(56.2%)보다 25.3%p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는 6.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455만5000가구(60.7%)로 조사됐다. 나머지 294만7000가구(39.3%)는 무직이었다. 취업자 1인 가구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1.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6%), 광·제조업(15.0%) 등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301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 원 미만(22.7%), 1000만 원 미만(16.8%) 순이었다. 1인 가구 가운데 10명 중 6명(61.3%) 정도가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 1000원이었다. 자산은 평균 2억949만 원, 부채는 365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자산은 0.8% 줄고, 부채는 1.9% 늘었다.

지난해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169만9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수는 123만5000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김정은·시진핑·푸틴 "출산은 애국" 독재자들도 '저출산 문제' 애간장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독재자가 입을 모아 출산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전 세계 대표적인 독재자로 꼽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모두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출산율을 재고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연설에서 드물게 북한의 출산율 감소를 인정하고, 여성들에게 애국의무를 일환으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을 권고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은 김일성 이후 62년 만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는 보고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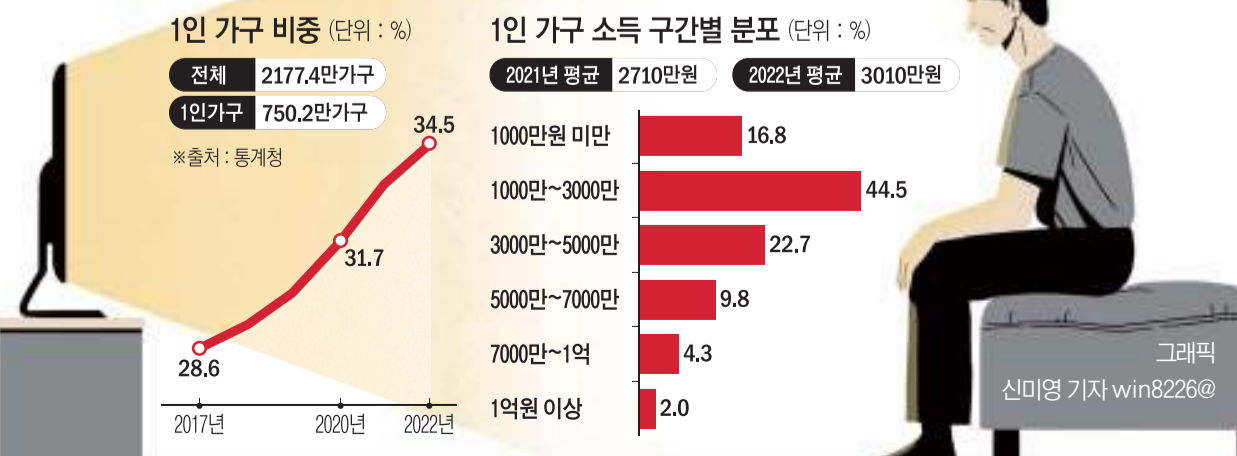
그는 "보석 같은 애국심과 고귀한 땀", "부족하고 어려운 시절에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르며 흘린 피땀 어린 노력과 공로" 등을 언급하며 북한 여성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를 막고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어머니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가정 문제"라며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업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시 주석은 10월 공산당 연례 전국여성연맹 회의에서 여성이 새로운 가족 경향 확립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민이 새로운 결혼과 출산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젊은이들의 결혼·출산·가족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러시아인민위원회에서 러시아 여성들을 향해 "우리네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처럼 7-8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훌륭한 전통을 보존하고 되살려야 한다"며 "대가족은 러시아 국민 모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 인구를 보존하고 늘리는 것이 천년 역사의 영원한 러시아, 러시아 세계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들 독재자들이 출산율 재고를 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북한 출산율은 1955년 3.67명에서 올해 1.79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인구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등락된 결혼 건수 또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다른 종류의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영국 국방부는 10월 우크라이나에서 29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죽거나 친 것으로 추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내우외환’ 韓경제… “장기간 1~2%대 성장 지속될 것”

## 경총,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우리나라의 내년 무역수지는 3년 만에 흑자 전환하겠지만,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 다툼, 각국의 선거, 공급망 불안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가 ‘이스라엘-팔레

10명 중 7명 “저성장 고착화”

전쟁·미-중 경쟁 최대 리스크

내년 ‘선거의해’ 정책변화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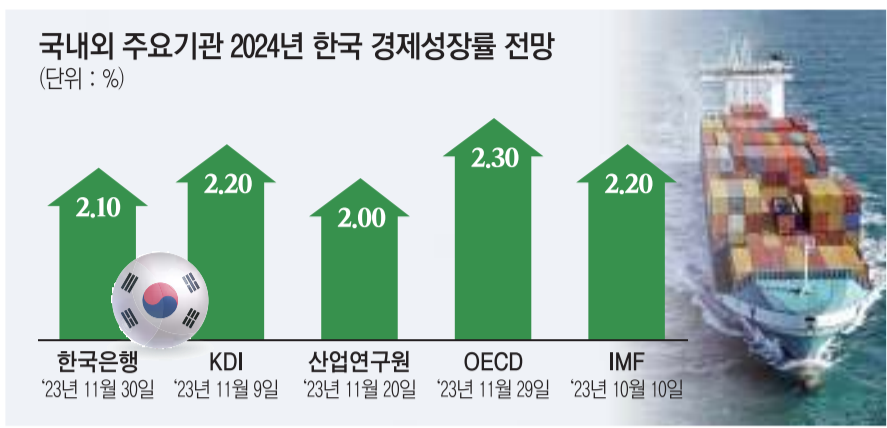
무역수지는 3년만에 흑전 전망

“글로벌 경쟁력강화 등 대비를”

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9%에 달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곳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밖에 없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에 러-우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교역이 축소되고,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2024년 세계경제통상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2% 후반의 성장세에 머물면서 세계 교역도 3% 초반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소비 시장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지속으로 제한적인 수출 여건이 이어질”이라고 전망한 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 경기 회복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패권 다툼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공급 체계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양림 코리아PDS 수석연구원은 ‘원자재 관련 공급망 리스크’ 발표에서 “내년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자원 민족주의”라며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올해보다 더 심화할 수 있어 자원 공급국의 생산 차질, 물류불확실성, 수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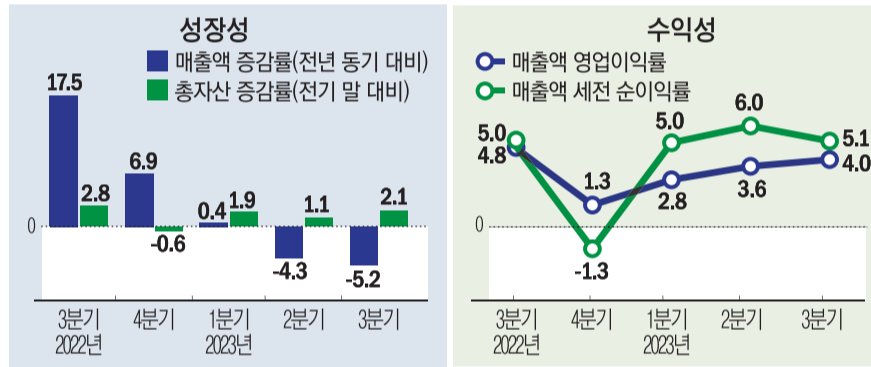
주요국의 선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각국에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첨단 산업 경쟁 심화도 내년 우리 경제의 변수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미국, EU 등 약 40개국이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러-우 전쟁과 가자 지구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 각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첨단·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린시컴 미국케이토연구소 경제통상부장 및 무역정책센터장은 “2024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에 힘입어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시 양 후보 모두 제조업 육성,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의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국내기업 성장·수익성 지표 (단위: %,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기준) ※ 출처: 한국은행



## 기업 3분기 성적표 3년만에 최저 성장·수익성 부진 이어 자산도 뚝

한은, 외감기업 2만2962곳 분석

매출액증가율 -5.2% 감소폭 확대

총자산증가율 2.1% 증가폭 축소

제조업·대·중기 등 모두 ‘뒷걸음’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표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3분기 외감(외부감사)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마이너스(-)5.2%로 전분기(-4.3%)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매출액증가율은 영업활동의 신장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다.

3분기 기업경영분석의 조사 대상은 2022년말 기준 외감기업 중 감사의견 거절 업체, 결산일이 1~11월인 업체 등을 제외한 2만2962개 기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6.8%로 2분기(-6.9%)와 비슷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2분기(-0.7%)보다 감소폭이 확대돼 3분기에 3.1% 하락했다. 비제조업 분야별로는 전기·가스업의 매출액증가율이 2분기 10.0%에서 3분기 -1.9%로 하락 전환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8→-5.8%)과 중소기업(-2.0%→-2.7%) 모두 매출액증가율 지표가 전분기보다 떨어졌다.

또다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2.1%로 전년동기(2.8%)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매출액증가율과 안정성지표(부채비율 등)는 전분기 수치와 비교하고 총자산증가율과 수익성지표(매출액영업이익률 등)와 같이 계절성이 있는 지표는 전년동기와 수치를 비교한다. 수익성도 나아지지 않았다. 3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0%로 전년동기(4.8%) 대비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영업효율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업종별로 같은 기간에 제조업(5.4→4.0%)은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4.0→4.1%)은 소폭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7→4.1%) 및 중소기업(5.4→3.9%) 모두 낮아졌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1%로 전년동기(5.0%)와 비슷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이익률 지표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3분기 말 90.2%로 전분기(90.8%) 대비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9.1%)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비제조업(131.9→130.1%)은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86.8→86.5%)과 중소기업(110.8→107.9%) 모두 낮아졌다.

차입금의존도는 25.9%로 전분기(26.0%)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20.8→21.0%)은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33.1→32.9%)은 하락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서울이마이!소울

새로운 변화 행복관 용산

당신이 원하는 모든것

용산

편의점

이태원1동주민센터 최병주 주무관

# 장제원, 불출마 선언... 김기현도 당대표직 사퇴 가닥

## 與 '주류 희생' 이어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민방문 기간 중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만간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게 될 전망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이르면 13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할 전망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민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의원들에게 '용기 있는 희생'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에게는 22대 총선 불출마를, 김 대표에게는 대표직을 내려놓아 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로 떠났으며, 3박 5일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현지시간) 귀국 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일정을 비우고 속고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도 갑작스레 취소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부터 당 대표 사퇴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김장연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의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 대표의 결단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우

尹 출국 전 "용기있는 희생" 당부  
張 "나를 밟고 총선 승리해달라"  
"김기현,尹 대통령 귀국 전 결심"  
'비대위' 꾸려 총선 나설 가능성  
윤재옥 직무대행 체제로 갈수도

세하다. 김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김 대표가 물러난다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통상당 대표가 없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원내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김 대표는 전날(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혁신위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해줬다"며 "일부 현실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의제가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와 민생을 살리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며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당을 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며 "혁신위에 등 떠밀리듯이 하기는 싫었을 것으로 본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가슴이 많이 아

프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니고,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다시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며 "제가 가진 마지막 막을 내어놓고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후 "혁신위의 요구를 거부하다 오늘 불출마 회견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인에게 정치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하고도 비견될만한 것이다. 제가 2016년 4월 13일 무소속으로 당선된 날부터 우리 지역주민을 부모님처럼 모셨다"면서 "제가 우리 사상구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감사하다. 그런 부모님 같은 사상 주민들을 버리라는, 정치 생명을 넘어 자연 생명을 버리라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 충정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불출마 결심 시점에 대한 물음에는 "제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것"이라며 "운명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 '슈퍼을' ASML 찾은尹... 이재용·최태원도 동행

### 3박5일 네덜란드 일정 시작

네덜란드를 국민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을 찾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동맹'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행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참모진과 부처 장관을 불러 2시간 가량 회의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이번 ASML 분사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ASML에 공을 들이는 것은 회사가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乙)'로 통하기 때문이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노광 공정은 미세하고 복잡

7나노 이하 반도체 초미세공정 필수 ASML 'EUV 노광장비' 독점생산尹 대통령 방문 통해 확보할지 이목

### 전용기서 2시간 동안 '반도체 회의'

한 전자회사를 반도체 웨이퍼에 그려 넣는 기술이다. EUV 노광장비를 활용하면 짧은 파장으로 세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다.

특히 ASML이 독점 공급하는 EUV 노광장비는 7나노(nm,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꼭 필요하다. 통상 노광장비 가격은 1000만달러(약 131억원) 정도인데, ASML이 생산하는 고사양 장비는 1억8000만달러(약 2370억원)에 달한다.

이 초고가 EUV 노광장비 확보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과 수출(양품 비율)로

직결되기에 업계에서는 이 장비 확보 자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본다. 하지만 ASML이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는 1년에 40대 안팎이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SML이 '슈퍼을'로 불리는 이유다.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에 EUV 노광장비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지만, ASML이 출하량을 단숨에 늘릴 수는 없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EUV 노광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ASML의 주요 고객이다. 삼성전자는 ASML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 ASML 지분 3.0%를 약 7000억원에 매입했으며, 이후 일부 매각해 올해 9월 말 기준 지분율은 0.4%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포털은 언론에 슈퍼갑... 규제원칙 세워야"

### 온라인플랫폼 개혁방향 토론회

"한국에서 포털은 권력이다." 이의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12일 "포털은 대한민국 최강의 미디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에게 '슈퍼갑'"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

혁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구글(google)이 대공세를 펼치면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60%로 떨어졌다. '다음'은 4%로 떨어졌다"면서 "포털 주권마저 사라지고, 구글이 한국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상태가 오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들이 인터넷 매체 클린(clean)화에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후퇴하고 있다. 제평위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의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변경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 회장은 "최근 다음 카카오가 100여 개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만 노출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문들과 지역 언론의(노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정위에 제소도 하고 방통위 조사 요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 22대 총선 레이스 돌입 전국서 출마선언 잇따라

###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YS 손자' 김인규, 부산 서·동구 '노무현 사위' 박상언, 서울 종로



김인규 박상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는 시작해야 하는 만큼 출마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전남

인 11일부터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졌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박상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출마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이영봉 전 KBS 기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동구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소속으로 북·강서구에 각각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에서는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동구갑,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을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설보좌관은 광주 동남갑, 박준배 전 김제시장은 전북 김제·부안 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국회에서 경기 고양정 출마를 선언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 SANTA FE



**Bluehands**  
 고객 곁에는 항상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서비스, 홈플러스 서비스, 긴급출동, 블루멤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출동지원센터 080-600-6000 ■ 정부(산입부) 공인 표준연비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18", 5/6/7인승): 복합 10.1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6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0", 5/6인승): 복합 9.7km/ℓ (도심:8.5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2 배출량 175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0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0", 7인승): 복합 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 배출량 181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5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1", 5인승): 복합 9.7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2 배출량 175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3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1", 6/7인승): 복합 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 배출량 181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7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18", 5/6인승, 빌드인캡 장착): 복합 10.8km/ℓ(도심:9.4km/ℓ, 고속도로:13.2km/ℓ) | CO2 배출량 156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9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18", 5/6인승): 복합 10.4km/ℓ(도심:9.1km/ℓ, 고속도로:12.8km/ℓ) | CO2 배출량 16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5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18", 7인승, 빌드인캡 장착): 복합 10.4km/ℓ(도심:9.1km/ℓ, 고속도로:12.8km/ℓ) | CO2 배출량 16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5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20", 5인승): 복합 10.4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5km/ℓ) | CO2 배출량 16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3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20", 6/7인승): 복합 10.0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6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21", 5/6/7인승): 복합 10.0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65kg | 8단 DCT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운반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일 사양(구동축 인승,타이어) 모델에 "빌드인캡 장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차와 빌드인캡 차량의 연비 통합 인증 사항입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차를 같은 가격으로 배운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없이 항공권 취소 가능해진다

여행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우선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

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 외 경우에는 여행사들이 당일 또는 24시간 내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구매 취소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 역시 자사에서 직접 발권 취소하

##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 하루 내에 취소해야 무료인데... 여행사 “휴일이니 내일 다시와” 16개 항공사도 취소시스템 개편

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구매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주는 국내 취항 항공사는 22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 취소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에 대해선 시정 권고했다. 해당 약관으로 인해 취소 시점이 뒤로 밀려 고객들이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시정에 앞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시정 이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부여했다.

8개 여행사 중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경우는 당일 취소시점 기준으로 항공사의 환불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취소한 고객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보따리상 통한 제품도 외화획득 실적에 포함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생산과정 거치지 않아도 인정

앞으로 전문무역상사(일명 ‘보따리상’)를 통해 수출한 완제품 등도 해당 제조업체 외화획득용 제품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 실적을 더해 정부 지원 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구매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 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등은 제조업체의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자사의 제품 수출이 맞지만, 기존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수입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했다.

용역의 범위도 확대했다.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어 수출에 기여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

기존 용역의 범위 중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은 대부분 체계인 ‘정보통신업’으로, ‘운수업’은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등도 새롭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 장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업이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우체국, 농·수·축산물 40%할인행사 1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방송인 문세윤 등이 ‘굿바이 2023, 우체국쇼핑 연말감사 대축제’를 알리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쇼핑은 29일까지 우수 팔도 농·수·축산물과 중소상공인·전통 시장 상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농협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시작

### 13년 만에 직선제로 선거 치러 농협법 개정안 불씨 여전히 남아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13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영호남 후보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장 연임 규정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현 이성희 회장의 도전 기회도 남아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25일로 확정됐다. 예비후보 등록은 13일부터 가능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후보자는 회원 조합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후보 등록 이후 12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13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다.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투표를 하고, 조합원 3000명 미만은 1표,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현 이성희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의 내용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농협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회원에 대한 무이자 자금 지원,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농민 단체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 이 회장도 출마가 가능했지만 최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불발 처리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던 영호남 조합장들이 이번 회장 후보로 대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이 회장은 경기 출신 최초 중앙회장이었다. 호남에서는 24대 선거에서 2위에 올랐던 유남영 조합장이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영남에서는 7대 특별·광역시를 대표하는 이사 조합장인 송영조 부산 금정 조합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내년 후보 등록일인 1월 11~12일 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이 회장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이때 당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나 금품제공, 비방·흑색 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등지

### 지상 4층 규모...2025년 완공 창업생태계 활성화 거점 기대

우리나라 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025년 전북 익산에 조성된다. 그린바이오 창업생태계 활성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지원의 첫 시작점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식을 12일 전북 익산 합영농공단지에서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관제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

회의원, 심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현을 익산시장, 안호근 농진원장, 김영재 식품진흥원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이봉학 반달 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농진원은 2021년 8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그해 9월 건축기획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에 대상부지를 매입했고, 7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올해 들어 4월 실시설계 이후 이달에 건축

인허가를 획득해 착공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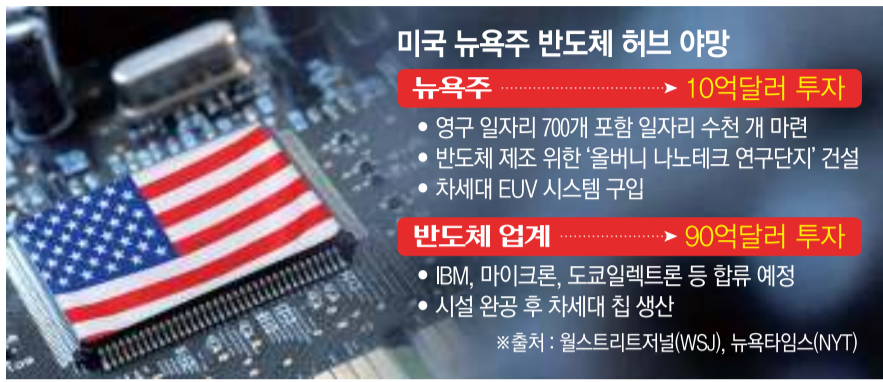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화 연구장비·시설,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창업보육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건축면적 7219㎡(지하 1~지상 4층), 부지면적 2만8000㎡의 공공인프라로 2025년 완공해 운영될 예정이다. 준공 이후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판로개척, 창업자금지원, 연

구개발(R&D) 및 기술이전, 대기업 협업 등을 연계해 그린바이오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익산시와 함께 완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금융허브’ 뉴욕, 100억弗 투자… 반도체 허브도 노린다

뉴욕주 10억弗·기업 90억弗 예정  
‘올버니 나노테크 연구단지’ 신설  
IBM·마이크론 등 대기업 참여  
“칩스법 통해 규모 더 확대되길”  
美 반도체기술센터 유치도 노려



**미국 뉴욕주 반도체 허브 야망**

**뉴욕주** → 10억달러 투자

- 영구 일자리 700개 포함 일자리 수천 개 마련
- 반도체 제조 위한 ‘올버니 나노테크 연구단지’ 건설
- 차세대 EUV 시스템 구입

**반도체 업계** → 90억달러 투자

- IBM, 마이크론, 도쿄일렉트론 등 합류 예정
- 시설 완공 후 차세대 칩 생산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유명한 미국 뉴욕이 반도체 허브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주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에 반도체 연구 활동 확대를 위해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뉴욕은 반도체

제조 시설인 올버니나노테크연구단지를 신설하고 700개의 새로운 연구 일자리를 포함해 수천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건물 신축에만 약 5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만드는 차세대 ‘High NA’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제조를 위한 첨단 장비도 들이기로 했다. 공사 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뉴욕주는 주정부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해 총 100억 달러를 올버니에 쏟을 계획이다. 뉴욕주와 함께하기로 한 기업으로는 IBM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도쿄일렉트론 등이 포함됐다. 주정부가 건물과 장비를 준비하면 기업들이 입주해 차세대 반도체 생

산을 시작한다.

올버니에서 오랜 기간반도체를 연구해 온 IBM의 무케시카레 반도체 총괄 부사장은 “새 제조 장비가 국가 소유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일련의 노력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라며 “우린 현 수준의 투자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끌어와 더 큰 규모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는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유치를 노리는 뉴욕의 야망도 담겨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칩스법을 발효하고 NSTC 건설에 110억 달러를 배정했다.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투자 계획이 뉴욕의 NSTC 입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연구 확대는 중국의 업계 지배력 확대와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있었다. 연방정부가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안 주정부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 올버니 프로젝트를 진행한 뉴욕이 반도체 허브 구축에 열을 내는 모습이다. 뉴욕주에는 이미 글로벌파운드리와 온세미컨덕터 등이 운영하는 다수의 대형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 중이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파트너십은 뉴욕이 사업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업계 전체에 보내는 것”이라며 “우린 칩스법 입법부터 마이크론의 역사적인 투자에 이르기까지 이곳 뉴욕에서 반도체 연구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리더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 ‘폴란드 정권교체’ 불똥 튀나… K-방산 “예의주시”

8년 만에 바뀌어… 계약취소 우려  
‘대규모 계약’ 체결한 한화에어로  
“폴란드, 아예 입장 바꾸진 않을 것”

폴란드가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민족주의 성향의 우파 정권이 떠난 자리에 친 유럽연합(EU)이자 중도성향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 업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방산업계는 폴란드가 군현대화 계획을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10월 총선에서 야권연합의 승리를 이끌었던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전 총리가 이날 하원 투표를 거쳐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서 폴란드는 우파에서 중도좌파로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됐다. 투스크 신임 총리는 12일 하원 표결을 통해 새로운 내각을 확정할 예정이다.

폴란드 정권 교체에 역풍을 맞게 된 것은 한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군사력 강화를 내건 폴란드는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자국 군사력을 키우는데 집중한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이 철회될 수 있다는 주장이 폴란드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연합 소속으로 지난달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전날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10월 15일(총선) 이후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정부 관리에만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역시 “10월 15일 이후 정부가 서명한 거래는 우리의 분석·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 내정자는 무기 수입 대신 자국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의 방산계약 체결을 주도한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현 국방장관은 엑스(X)에 “코시니아크-카미시가 계약 검토를 언급한 것은 계약이 취소됐다고 발표한 것이

나 마찬가지”라며 “그는 한국산 장비를 자국 업계 장비로 교체하겠다고 포퓰리즘적으로 말할 것이고 결국 우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폴란드는 현재 군 현대화 사업을 미룰 수 없고,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것은 맞다. 하지만 이제 막 정권이 바뀐 것이라 특별히 현 지 사정이 바뀌진 않은 상황”이라며 “현지 상황을 살피고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김해욱 기자 haewookk@



### 고금리·지정학적 갈등에 세계 무역규모 5% 줄 듯

올해 글로벌 무역이 지정학적 역풍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전년 대비 5%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액이 전년 대비 4.65% 줄어든 30조7000억 달러(약 4경352조80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 무역이 1년 전보다 약 7% 증가한 반면, 상품 무역이 8%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이는 고금리에 따른 경제 부담과 미·중 긴장 속 공급망 재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국가 간 상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더 많이 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UNCTAD는 설명했다. 또 선진국 수요 둔화, 개발도상국 수출 부진, 동아시아 경제 둔화,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저 효과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 등도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보고서는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국가 간 교역이 증가했지만, 지정학적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의 양자 간 교역이 줄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들 사이의 이러한 불리가 내년 무역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UNCTAD는 “특정 경제지표는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지난해 교역품 가치가 감소했음에도 국제 무역량이 약간 긍정적 추세를 보이는 것은 수입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탄력적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계 무역은 올해 내내 감소했으며, 내년 전망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일반적으로 비관적”이라며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높은 부채 수준, 광범위한 경제적 취약성 등은 세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선 기자 hsbun@

## 美 이어 中도 베트남에 ‘리브콜’ … 시진핑, 6년 만에 국민방문

양국 관계 ‘운명공동체’ 재정립  
안보·교역·농산물 수출입 확대  
中-베트남 잇는 교통인프라 논의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9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갖가지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석 달 만인 12일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민 방문해 양국 관계의 격상을 추진한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6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베트남 방문은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앞서 시 주석은 2015년과 2017년에 베트남을 방문했다.

로이터는 “양국이 당 차원의 교류 및 안보·방위·교역·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 방안도 논의

의 주제로 떠올랐다.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월 베트남을 방문, 응우옌 서기장을 만나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방문 당시 인텔과 구글·보잉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나서 베트남 현지 투자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이다.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동반자를 넘어 ‘운명공동체’로 재정립하겠다는 전략이다. 응우옌 민 부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시 주석의 방문에 앞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12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틀간의 이번 국민방문에서 시 주석은 베트남과의 관계 격상을 통해 미국을 견제할 계획이다.

라고 말해 관계 격상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시 주석은 방문에 앞서 이날 베트남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에 실린 ‘전략적 의

미를 지닌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함께 손을 잡고 현대화를 향한 새 장을 열자”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고대역폭메모리>

# “엔비디아·AMD 잡아라”... K-반도체, HBM 생산성 올인

## HBM 수요 본격 증가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미국 팹리스 기업 AMD가 참전을 알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객사 잡기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HBM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충남 천안·온양 패키징 라인에 신규 라인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3분기 내 라인 설치를 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한다.

삼성전자의 신규 라인 증설은 향후 대폭 늘어날 HBM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성능을 높인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 AMD ‘참전’ 반도체 2사 ‘큰손 잡기’ 총력

삼성전자, 신규라인 증설하고 내년 공급량 2.5배 이상 확대

SK하이닉스도 라인 늘리고 전담부 ‘HBM 비즈니스’ 신설

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졌는데, 시장에선 HBM이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HBM 공급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보다 2.5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설 투자 금액도 대폭 확대



삼성전자 HBM3E 신제품 ‘사인볼트’(왼쪽)와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 특화 고대역폭메모리 HBM3E. 사진제공 삼성전자·SK하이닉스

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전체 시설 투자 금액은 53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53조1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올랐다.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 공장 M15에 HBM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그간 M15는 낸드 플래시 전담 사업장이었다. 기존 HBM 생산 거점인 경기 이천이 포화에 이르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현재 HBM 양산에 필요한 실리콘관통전극(TSV) 본딩, 웨이퍼포팅시스템(WSS) 등의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인건

M15X 공장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 이곳에서도 HBM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AMD가 최근 최신 AI 반도체 출시를 알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HBM 공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와 경쟁할 새로운 고객이 생긴 것이다.

AMD는 앞서 6일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최신 AI 반도체 ‘인스팅트 MI300X’ 시리즈인 ‘MI300X’와 ‘MI300A’를 공개했다. 이들 칩 하나에는 4~8개 가량의

HBM이 탑재된다.

업계에 따르면 AMD 신제품에 들어가는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량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AI 인프라(Infra)’ 조직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HBM 전담 부서 ‘HBM 비즈니스(Business)’를 신설했다. 그간 HBM과 관련하여 조직과 기능이 여러 부문의 흠뻑이 있던 조직을 하나로 결집, 효율을 높였다. HBM을 포함한 메모리 영업 마케팅 전담 조직 ‘GSM’(Global Sales & Marketing)도 함께 편제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4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6~49%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구자은(앞줄 가운데) LS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부 산하 국가산업개발센터 사업 협력 및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LS그룹

## LS그룹, 사우디 손잡고 신규사업 ‘탄력’

사업 협력 및 진출을 위한 MOU 기계·설비 분야 협력 우선 추진

LS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 협력 및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 사우디 산업광물부 장관, 술탈 알 사우디 산업개발기금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S그룹은 사우디 산업광물부 산하의 국가산업개발센터(NIDC)와 MOU를 맺고, LS그룹의 사우디 내 신규 사업 기회 발굴

에 공동 협업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LS그룹은 사우디의 여러 공공기관 및 현지 기업과 산업용 자동화 분야 진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설비(M&E) 분야에 대한 사업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LS그룹이 가진 전선, 전력기기, 소재, 사출 등의 사업 영역에서도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 회장은 “LS그룹은 1986년도 132kV 급 초고압케이블 수주를 시작으로 사우디에 진출해 지속적으로 사업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M&E 분야 협업 기회를 포착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항공업계 활기... 국제선 이용객 전년비 3배↑

올해 국제선 이용객 수가 지난해 이용객 수의 3배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일본·동남아·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항공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국내 공항발 국제선 이용객 수(출발·도착 포함)는 6163만 85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 수인 1960만 8374명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월간 이용객 수도 상승 추세다. 월간 국제선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해 2022년 3월까지 50만 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이 본격적으로

6164만명, 코로나 직전 75% 수준  
日·동남아·美 중심 수요 회복세

로 완화하며 월간 이용객 수는 지난해 6월 100만 명을 돌파한 뒤 같은 해 8월 200만 명, 11월 300만 명 등 빠르게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400만~500만 명대 수준에서 7월 600만 명대를 넘어서는 등 월간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반기에는 600만 명에 못 미친 9월(약 595만 명)을 제외하면 매달 600만 명 이상이 국제선을 이용했다. 비성수기로 꼽히는 4분기인 10월, 11월에도 여객 수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4분기에도 국제선 호조가 끊기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국제선 여객 수는 약

6800만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국제선 이용객 수인 약 9090만 명 대비 74.8% 수준으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국제선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방문한 국가는 1553만 6920명이 찾은 일본이다. 일본에 이어 베트남(709만 3119명), 중국(531만 1773명), 미국(407만 3774명), 태국(344만 2218명) 등이 이용객 수 상위 5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엔저 효과로 인한 여행자 수 증가로 일본이 가장 많은 국제선 이용객이 방문한 국가가 됐다”며 “일본 외에는 가까운 동남아 국가와 미국 등이 국제선 수요 회복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 글로벌 수주 줄어드는데, 국내 조선사 수익은 ‘우상향’

세계 선박 수주량 전년비 20% 뚫  
평균 건조가 올라 신조선가지수↑  
제조 원가 감소세도 ‘긍정적 영향’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지속해서 감소 중이지만, 조선사들의 이익 규모는 우상향할 전망이다. 수주량 감소에도 선박 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원가 부담도 올 상반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주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 역시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전문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159만 CGT(표준선 환산 톤수)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 수주량인 371만 CGT 대비 57% 줄어든 것이다. 336만 CGT로 집계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53% 감소했다.

올해 누계 선박 수주량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올 1~11월까지 전 세계 누계 선박 수주량은 3809만 CGT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4777만 CGT) 대비 약 20% 감소했다.

국내 조선업체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해 말 국내 조선업체는 57만 CGT를 수주했는데, 이는 전월 154만 CGT 대비 약 63% 감소한 수치다. 올 1~11월 국내 누계 선박 수주량 역시 963만 CGT로 전년 동기(1357만 CGT) 대비 약 41% 줄었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 전망치는 2900만 CGT인데, 이는 올 11월까지 누적 수주량인 3809만 CGT보다도 약 24% 줄어든 수치다.

연구소는 액화천연가스(LNG)선, 컨테이너선 수요가 꺾인 것을 선박 발주 감소의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내년 수주량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조선사 이익은 오

히려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9% 상승한 176.61로 나타났다. 전월 신조선가지수였던 176.03과 비교해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선박 수주 시 조선사들이 선주로부터 받는 평균 건조 가격이 오르면 신조선가지수 역시 상승 집계된다.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호재다. 국내 조선업체는 현재 국내 철강업체와 올 하반기 후반 가격 협상을 약 5개월째 지속하는 중인데, 약 10%가량 인하하는 쪽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후 판가는 전체 선박 건조비용의 20~30%를 차지한다.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도 국내 조선사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선박 발주는 줄어도 친환경 기술력이 탑재된 선박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를 진행 중인 국내 조선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현대차×현대백 “차 안에서 주차비 정산하세요”

현대백과 ‘카페이’ 도입 업무협약

앞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 고객은 현대백화점에서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12일 현대백화점과 주차요금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 ‘카페이(CarPay)’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페이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 실물 카드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현대차·기아의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다.

현대차·기아는 10월 말부터 시범 운영



현대 카페이를 통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을 개시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등 전국 10개 지점에 카페이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전기차·UAM 등 차세대 리튬메탈 배터리로 주름 잡을 것”

## 인터뷰

### 배창득 비아이랩 대표

“단기적으로는 국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배터리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차세대 배터리에서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되겠다.”

배창득(사진)비아이랩 대표는 최근 경기도 안산반월산업단지공단에 있는 자사 신축 공장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2배 이상의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학박사인 배창득 대표는 청년창업사 관학교 출신으로 차세대 배터리 중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아이랩은 업력 3년 차의 초기 벤처지만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있어 배 대표의 자부심이 남다르다. 국내 유일의 차세대 리튬메탈 배터리 스타트업으로 독자적인 배터리 핵심 소재와 셀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배 대표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이 흑연 음극재를 사용하는 반면, 리튬

기존 리튬이온 대비 용량 2배 ↑ 드론·택시 등 운행거리 개선 가능

30명 중 24명이 베테랑 개발자 안정성 극대화 솔루션 연구 박사

잠재력 인정... 벤처투자 줄이어

메탈은 이를 리튬 금속으로 대체해 크기와 부피를 모두 줄일 수 있어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분리막과 냉각장치가 없어 해당 부피만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단위 무게당 용량이 기존 리튬이온 대비 2배가량 증가해 대형 드론과 여객기, 택시 등의 비행 및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기존 리튬이온으로 한 번 충전해 500km를 가는 전기차 가 있다면 리튬메탈 배터리로는 1000km 주행이 가능한 셈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가 모두 향상된다는 의미다.

그는 “(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개발하고도 배터리 용량 문제로 많은 제약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자동차나 드론 회사, 비행



기 제조 기업들도 관심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비아이랩은 20년간 연구·개발해 온 계면 코팅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해 배터리 개발 최대 난제인 덴드라이트(Dendrite·리튬메탈 배터리 충전 시 리튬이온 극 표면에 쌓여 생기는 배터리 성능 저하와 분리막 훼손 현상) 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리튬메탈 배터리용 전해질 합성 기술 리튬메탈 배터리의 SEI(고체 전해질 층) 보호층 형성 기술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비아이랩은 미국 지사를 포함해 총 30명 규모의 인력 중 개발팀에만 24명이 포진해 있다. 대기업 출신의 베테랑급 인력과 전문 분야 박사들로 구성된다.

비아이랩의 성장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 사업도 한몫을 했다. 비아이랩은 2021~2022년 산단공으로부터 1억

8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전기자동차용 장수명형 380Wh/kg급 셀 개발을 위한 이온 전도 소재 톨투를 직접코팅 기술 개발’을 수행했다.

배 대표는 “배터리 개발에서 핵심인 코팅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라며 “기존 배터리 소재를 코팅해 성능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벤처투자 업계는 비아이랩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스톤브릿지 40억 원, SJ투자파트너스 20억 원, BSK인베스트먼트 20억 원, 포스코 기술투자 30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비아이랩은 올해 1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 중 9명은 청년 인력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이투데이-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기획

## 우아한청년들 “라이더와 상생” 시간제 보험료 933원으로 인하

보험 도입시기 대비 47.3% 낮아져 가입 장벽 낮추고 사회 안전망 확충

라이더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시간제보험’을 도입한 우아한청년들이 반년 이채 되지 않아 보험료를 더 낮췄다. 업계 최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D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시간제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933원으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된 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우아한청년들은 2019년 12월 1일 배달업계 최초로 시간제보험을 도입했다. 배민커넥트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서비스다.

특히 모든 라이더를 대상으로 보험을 100% 적용한 것도 배달업계에서는 우아한청년들이 최초다. 시간제보험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험 가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보험료는 시간제보험 최초 도입 시기(1770원)와 비교해 47.3% 낮아졌다. 라이더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우아한청년들의 의지와 낮은 사고 발생 및 손해율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7월 보험료를 세 자릿수로 인하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추가 인하이기도 하다.

우아한청년들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

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다. 시간제 보험사를 기존 1곳에서 현재 4곳까지 확대했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륜차 외 자동차, 개인 운송수단(PM) 등 모든 수단에 대해 시간제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PM은 최초 도입 시기 360원보다 33.3% 낮춘 240원으로 인하했다.


시간제보험 가입제한 나이와 운송수단 소유 구분을 완화하며 더 많은 라이더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10월부터 시간제보험 가입제한 연령폭을 늘렸으며, 본인 소유의 이륜차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안과 달리 친구, 가족 소유의 이륜차 1대당 2명의 시간제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며 가입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우아한청년들은 6월 공식 출범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최대 규모자본금 47억 원을 출자하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보험상품을 시중대비 평균 15%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더 많은 라이더가 보험 혜택을 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험 서비스 도입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인 만큼 배달종사자 대표 보호모델로서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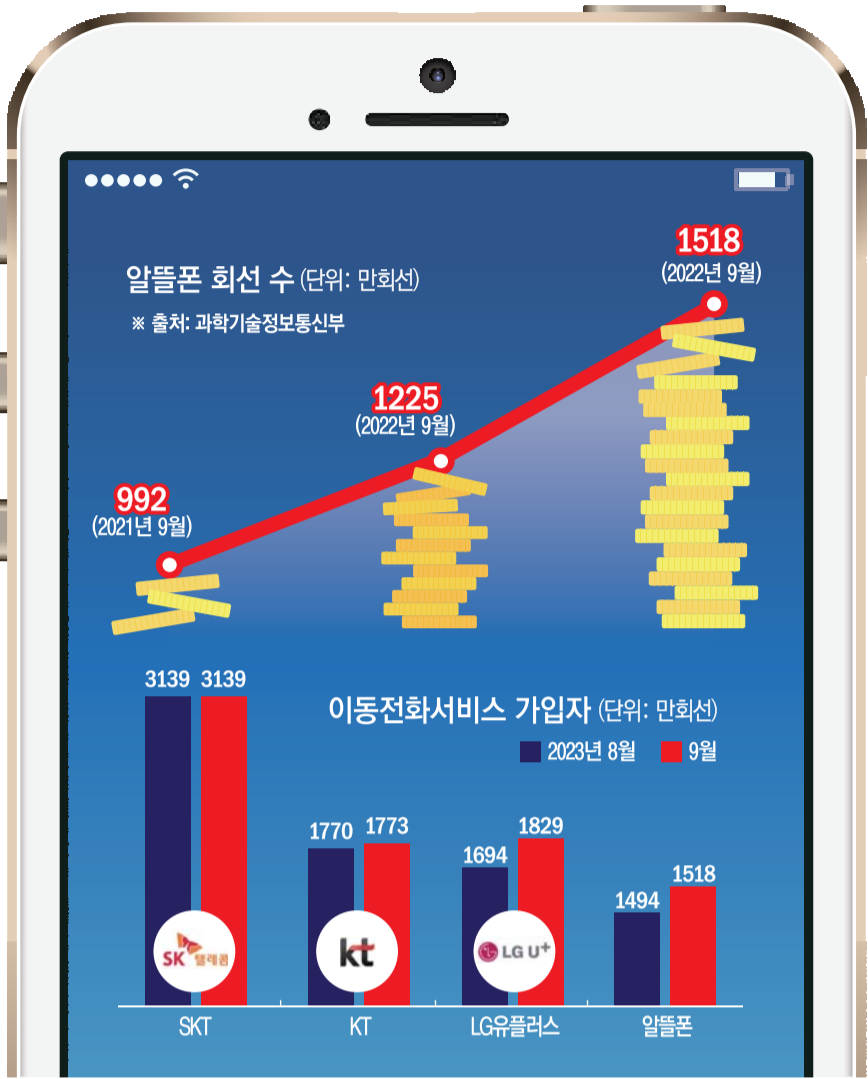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이나 PBR처럼 기술가치 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랩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추위),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5246호  
13025.11.19 - 2022.11.19  
SK증권 본회(자산)인 심사증 제23-901호  
2022.11.19 - 2026.11.19

# KB 이어 우리銀도 알뜰폰 ‘군침’... 속타는 이통업계



은행들이 알뜰폰(MVNO)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자 이동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은행의 진출이 늘어난다면 직접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알뜰폰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은행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점유율 규제, 회계 분리 등 제재는 당분간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알뜰폰 사업 진출을 저율질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알뜰폰 진출을 두고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경우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우리은행이 알뜰폰 사업자가 되려면 기간망을 가진 이동통신사와 망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은 이동통신사와 논의 중이다, 아직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와 계약이 완료되면 서울전파관리소에 별정통신사업자신청서를 내고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우리은행은 올 초 가입자 40만 명을 넘긴 KB국민은행의 ‘KB리브엠’ 사례를 참

은행권 첫 도전 ‘KB리브엠’ 성공 우리銀도 이통사와 망 임대 논의 정부 “통신비 부담 인하” 긍정적 업계 “공격적 마케팅으로 급성장 출혈경쟁 등 통신시장 교란” 반발

고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출범한 KB리브엠은 은행의 특징을 살려 자행 금융 상품과 접목한 알뜰폰 서비스를 선보여 차별화했다.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알뜰폰 업계는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과도한 요금 프로모션과 사은품 지급 등을 통해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과당경쟁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KB리브엠 상품은 기존 알뜰폰 업체의 유사 요금제들보다 2만 원가량 저렴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단기간에 확대한 것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은행의 알뜰폰 진출

이 기존 사업자들의 가입자 뺏기가 아닌 혁신 서비스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출혈 경쟁을 불러올까 걱정인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시장 파이가 키워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기존 알뜰폰 업체들이 할 수 없었던 통신과 금융의 결합 부가서비스 등을 통해 시장을 키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기존 통신사를 대항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건 시중은행이란 판단에서 알뜰폰 경쟁 활성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육성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시 “국민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적자 탈출 노리는 티빙... “민을맨은 오리지널 히트 IP”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메가히트 지식재산권(IP)를 육성해 적자 탈출을 노린다. 올해 하반기 티빙 구원투수로 등판한 최주희 대표는 플랫폼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대폭 개편하고 IP 유통의 다각화, 광고사업 진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12일 OT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오리지널 시즌제로 선보이는 프랜차이즈 IP를 앞세워 집토끼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유미의 세포들’, ‘술꾼도 시여자들’ 등을 연이어 성공시킨 티빙이 연말에는 티빙의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충성고객을 끌어모은 ‘환승연애’ 시즌3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티빙의 첫 오리지널이자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여고추리반 시즌3도 방영한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톨플

‘환승연애 시즌3’ 이번달 공개 7년 만에 돌아오는 ‘크라임씬’ ‘여고추리반’도 새 시리즈 준비 광고사업 진출·글로벌 협력 등 수익 다각화로 흑자 전환 노려

레이 추리예능 크라임씬이 7년 만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크라임씬 리턴즈’로 돌아온다.

12월 구독료를 20% 인상한 티빙이 이용자 유입 기여도가 높은 환승연애 시즌3까지 출시하면서 적자 폭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티빙은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만39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렸다.

티빙은 경쟁력 있는 IP 확보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는 동시에 적자 폭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티빙의 적자 규모는 2020년 61억 원에서 지난해 1192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올해도 3분기까지 117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대표가 꺼내 든 카드

는 광고 시장 진출이다. 최 대표는 지난달 열린 2023 국제 OTT 포럼에서 “티빙은 내년 상반기 내에 광

고 상품 모델을 출시하고 OTT 라이브 스트리밍은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도 우리의 광고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빙은 내년 1분기부터 토종 OTT로는 최초로 월 5500원 상당의 광고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

다. 이와 더불어 영상 속 비추출 간접광고(PPL)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파라마운트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파라마운트와 공동제작한 ‘뽀갓’과 ‘온다’ 등을 통해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에 동맹 체계를 구축한 양사는 ‘운수 오진 날’, ‘우씨왕후’, ‘종거나 나쁜동재’,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피라미드 게임’ 등을 파트너십 콘텐츠로 선정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티빙 관계자는 “티빙은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지속해왔다”면서,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공방정식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K콘텐츠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 SKT ‘가족로밍’ 5개월간 20만가구 썼다

SK텔레콤은 올해 한시적으로 선보였던 ‘가족로밍 프로모션’을 정규 상품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로밍 프로모션은 가족 중 한 명만 로밍 상품인 바로(baro) 요금제에 가입하고 3000원을 추가하면 최대 5명이 로밍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로, 지난 6월 말 처음 도입됐다. SKT에 따르면 가족로밍 프로모션을 시행한 5개월 동안 총 20만 가구, 45만 명이 이용했다. 회사 측은 “고객들에게 경제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로밍 도입 이후 19세 이하 고

객들의 로밍 이용률은 출시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으며, 여성 고객 역시 같은 기간 1.3배 증가했다. 또 해외에서 로밍을 이용한 가구의 약 70%가 가족로밍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SKT는 정규 상품 도입과 함께 내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11월부터 25일까지 15일간 T 로밍 쿠폰 구매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50%를 네이버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연다.

캐시백 혜택 대상 T 로밍 쿠폰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 가능한 바로 3·6·12·24GB 4종이다. 캐시백 혜택은 1인당 2개까지만 제공한다. 캐시백 혜택은 프로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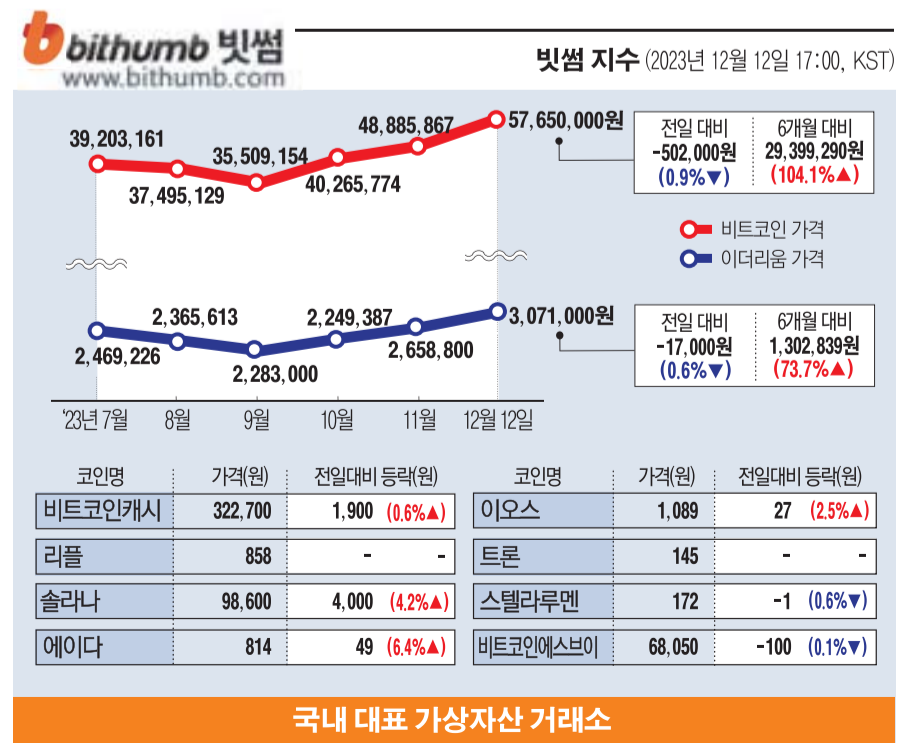
‘바로’ 요금제에 3000원 추가하면 최대 5명 이용 가능...정규상품 전환

이 끝난 후 12월 말에 지급된다. 구입한 로밍 쿠폰의 등록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최대 2년이며, 사용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SK텔레콤은 또한 가족로밍 이용자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바로 24GB 상품(7만 9000원, 최대 30일)도 정규 상품으로 도입했다. 12GB 상품보다 GB당 33%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6월 바로 요금제를 개편해 요금 변동 없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71% 늘리고, 이용기한도 확대한 바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아파트 리모델링 때 인허가 간소화·심의 일원화 필요”

## 서울시리모델링조합 협간담회

아파트 4217개 단지 절반 이상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적합  
 용적률 상향 재건축 유도에도 리모델링 포기 단지 없을 것  
 1층 필로티로 전용 수평증축 수직증축 안전성 진단 불합리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안전 진단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심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향후 서울 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리협은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서 ‘2023년 하반기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리협은 최근 불거진 필로티 구조의 유권해석 변경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그간 수평증축으로 여겨졌던 1층 필로티 및 최상층 1개층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해당 설계와 증축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데 근거한 조치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의 안전 우선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지역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 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이때문에 2차 안전진단과 1, 2차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과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리협은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사업의 추진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태생 및 추진방식이 다른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유도 정책이 나오더라도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사업방향을 선회하는 단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서리협은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확장성과 전망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올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규모는 총 4217곳으로, 이 중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곳(20.8%)에 그친다. 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21.3%),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198곳(52.1%)에 이른다.

신이나이수 우성극등 리모델링 조합장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향후 서울의 주거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못지않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라며 “사실상 서울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 과정에서 서리협과 서울시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 DL이앤씨 ‘청약 흥행’ 이어 이번엔 ‘계약 완판’ 행진

‘검단 웰카운티’ 1166가구 완료  
 ‘동탄레이크파크’도 계약 순조  
 분양 양극화 속 완판 행진 주목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투시도. 사진제공 DL이앤씨

DL이앤씨가 올해 분양한 단지들이 청약 흥행에 이어 계약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내놓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국민주택 1166가구가 지난 7일 모든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영주택 물량 292가구가 조기 완판된 데 이어 국민주택도 완판되면서 총 1458가구의 대단지가 모두 계약을 마감했다.

단지는 지난 10월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에서도 6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349건이 접수돼 분양 당시 인천 최대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35대1의 경쟁률로 전주

택형 마감된 바 있다.

올해 서울 강동구 최대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무순위 청약을 거쳐 100% 완판됐다. 단지는 앞서 진행한 무순위 청약 결과 8가구 모집에 2883건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 1017대 1을 기록하며 완판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해 전국 최대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한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

상’도 현재 계약을 진행 중으로, 민영주택이 먼저 100% 완판되며 계약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단지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13만3042명이 몰려 올해 전국 최대 청약 접수 기록을 경신했다. 14일부터 국민주택 계약이 시작될 예정으로 연내 모든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은 최근 분양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수한 입지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상품 완성도 등을 통해 뛰어난 분양 성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8월까지 하자판정 건수 0건 달성 및 최근 4년간 1000가구당 하자판정 건수가 1.5건으로 업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엄격함 품질 관리를 증명하는 바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대우건설 컨소, 대방동 군부지·남양주 양정 우선협상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흥한주택종합건설, 브이산업)은 ‘대방동 군부지’와 ‘남양주 양정역세권 S-8블록’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32층 6개동 규모의 아파트 1326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남양주 삼패동 일대에 위치한 양정역세권 S-8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5개동의 아파트 784가구가 들어선다. 대우건설은 전체 컨소시엄 지분율의

51%로, 공사비 규모는 4439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대방동 군부지를 인근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축구장 2배 규모의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전체 가구수의 70% 이상을 공원과 광장이 조망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세대 내부에는 푸르지오 최신 주거상품을 도입한다. 양정역세권에는 ‘그린 웨이브’라는 주제 하에 도시와 자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했고, 9250㎡ 규모의 중앙광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가로변과 도시가로변 맞춤형 스카이라인을 설계했고, 단지 앞 울석천의 수변경관을 고



대방동 군부지 조감도. 자료제공 대우건설

려한 경관 특화도 적용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7월 부산에코델타시티 11블록 수주에 이어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탁월한 설계 및 시공 경쟁력을 바탕으로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 엘비비 골든 까멜리아 로션

All Day Care In Lotion

추위에도 꽃을 피우는 까멜리아의 강인한 생명력과  
 항산화 효능을 지닌 강황이 만나 탄생한 골든 까멜리아 로션

100시간 보습 지속 · 피부 탄력 개선 · 민감 피부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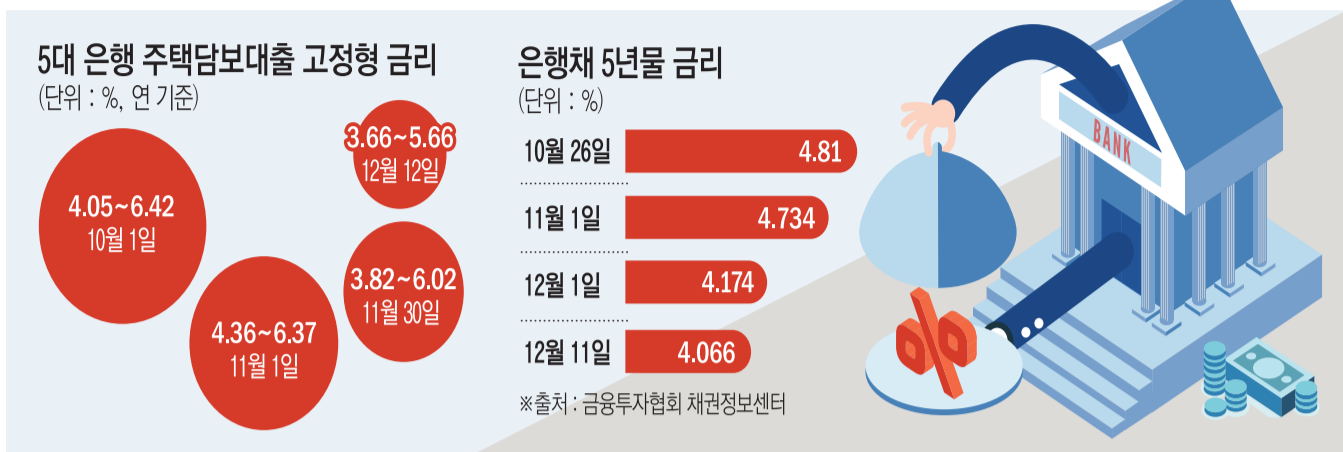
LBB 한남동 쇼룸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 55길 45 | 롯데 백화점 본점 1F / 롯데 면세점 본점 9F  
 LBB 스파 | 한남동 라 부티크 블루 / 제주 나인브릿지 CC  
 02-555-5152 lbbkorea.com @lbb\_cellbeauty

# 주담대 금리 年3%대로 '털썩' 떨어진 데다 '온라인 대환대출' 내년 1월 출시 빚더미 '영끌족' 한숨 돌릴까... 가계부채 또다시 키울까

은행채 5년물 금리 4.066%로 '뚝'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도 하락 전망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고심 "금리 방향성 불확실성 조심해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3%대로 내려왔다. 내년 1월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출시되면 차주들의 대출금리 부담이 더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6~5.66%이다. 10월 1일(연 4.05~6.42%)과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76%포인트(p), 0.39%p 내리갈 수 있다. 이는 기준금리 하락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선반영된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11월 기준 4.066%로 집계됐다. 앞서



10월 26일 연중 최고점인 4.81%보다 0.744%p 하락한 수치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일 4.734%, 이달 1일 4.174%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것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내리갈 전망이다. 은행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변동형 주담대의 준거금리로 삼는

데, 최근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자제' 주문에 지난 한 달간 예금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한 달 동안 8개 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주요 정기예금(1년 만기)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3.50~3.95%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65~6.65%이다.

내년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도 가

계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요인으로 꼽힌다. 차주들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핀테크사 등과의 조율을 통해 내년 1월 중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애초 금융당국은 21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주담대 금리가 하락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 빠

르게 금리를 떨어뜨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막판 시뮬레이션을 거쳐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같이 대환할 수 있으면 좋으니 함께 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전산을 한꺼번에 돌려도 시스템 안정성에 무리가 없을지 등을 살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로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실제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의 방향성이 향후 하락하는 쪽으로 완전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하게 대출을 늘려서 주택을 구매하는 등 액션을 취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하영 기자 haha@

## 초고령화 시대, 노인 요양사업 속도내는 보험사

삼성생명, 시니어리빙 TF 신설 신한라이프는 큐브온에 사업이관 KB라이프생명, 실버타운 광복투자 "초기 비용 부담... 규제 완화" 요청

생명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요양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사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자회사를 설립해 당국 승인 요청을 받는 등 신사업 가동 준비를 마쳤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획실 내부에 시니어리빙 사업 추진 검토를 위한 TF를 신설했다. 삼성생명의 시니어케어사업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앞서 올해 3분기 기업설명회(IR)에서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

고 전망하면서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한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IR를 통해 "그룹 내 요양시설인 노블 카운티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도 요양사업 자회사를 재편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은 지난 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다른 자회사 신한금융플랫폼으로부터 요양사업을 양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큐브온은 신한라이프가 2021년 12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설립한 헬스케어 자회사다. 신한큐브온은 현재 요양사업 양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내년 부터 신한큐브온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요양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요양시설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금융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보사 중 요양시설 산업에 활발한 곳은 KB라이프생명이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10월 초 계열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금융권 최초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 빌리지', '서초 빌리지'를 운영 중이며, 첫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만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가 사업 확장의 변수다. 현재 보험사들은 요양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한다. 토지 없이 요양원만 운영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업 진출 시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들도 진출이 저조한 편인데, 이를 당국에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1위인 삼성생명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자 규제완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신인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철주 회장도 전일 열린 취임식에서 "생보사의 헬스케어와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전 생애를 관리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지연 기자 sij@



임형준(가운데) 흥국생명 대표와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흥국생명

### 소외계층 500여명에 '밥퍼' 나눔 흥국생명, 1000만원 기부금 전달

흥국생명이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나눔 활동에 나섰다.

12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전날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밥퍼'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의 마음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흥국생명은 독거노인을 포함한 지역소외계층 500여 명의 무료급식 준비와 배식을 지원했다. 또한,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상원 기자 jsw@

## 해외서 죽 쏜 카드사 "현지 車금융시장에 집중할 것"

카드사들이 해외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비용을 감수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3분기 실적도 감소했다. 카드사들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법인을 운영 중인 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7억 원) 대비 약 40% 급감한 수치다.

신한카드 해외법인 4곳(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카자흐스탄 법인과 인도네시아 법인은 비교적 선방했으나 핵심 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64% 감소한 영향이다. 이는 수출 감소와 국내 부동

글로벌 경기침체에 3분기 실적 급감 누적 순익 240억... 작년보다 40%↓ 車법인 인수 등 사업협력 강화 모색

산 시장 침체로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2%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KB국민카드는 3곳(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캄보디아 법인인 KB대한특수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78억 원)와 비교해 33억 원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자 선제적 리스크 차원에서 선별적 영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태국 법인(KB제이캐피탈)과 인도네시아 법인(KB멀티파이낸스)도 순이익이 같은 기간 각각 39.97%, 11.53% 줄었다.

반면, 우리카드 2개국(미얀마·인도네시아)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우리파이낸스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해 9월 인수 이후 당시 3분기 누적 실적이 9월 한 달지만 잡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향상됐다.

2018년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롯데카드는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이지만 적자폭은 개선됐다. 올해 3분기 손실액은 87억 원으로 전년 동기(-101억 원) 대비 적자폭이 14억 원 줄었다.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하나카드 해외법인은 3분기 누적 손실 760만 원을 기록했다.

카드업계는 자동차 금융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법인을 인수하거나 내

### 카드사 해외법인 3분기 누적 순이익 (단위 : 원)

	2022년	2023년
신한카드	218억	157억
KB국민카드	200억	145억
롯데카드	-101억	-87억
우리카드	16억	62억
하나카드	-	-760만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지난해 9월 자회사 편입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트위킹을 활용한 사업 전략으로 반전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금융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인 만큼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동차금융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불우오션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자동차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자동차금융 시장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jsw@

### 5돌 맞은 '카뱅 모임통장' 순이용자 1000만명 눈앞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가입

출시 5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순 이용자수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이용자 수가 975만 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5년간 일 평균 5000명 이상 모임통장에 새로 가입한 셈이다.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원 초대 기능'과 실시간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됐다. 김범근 기자 nov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박현주의 해외개척 뚝심... 미래에셋 '글로벌 톱티어 IB'로

## 印10위 증권사 웨어칸 인수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너무 많은 갈증을 느낀다. 미래에셋은 벽을 문으로 바꾸듯이 금융에 새 길을 여는 영원한 혁신자가 되겠다.”

2017년 미래에셋그룹 창업 20주년 행사에서 박현주 회장이 한 말이다.

일찌감치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린 박현주 회장의 해외 영토 확장 전략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그룹의 해외법인의 세전이익은 글로벌 전략가(GSO)로 박 회장이 취임한 이래 7배 가까이 늘었다. 박 회장이 해외시장에서 보여준 투자방향의 골자는 ‘혁신’과 ‘지속적 일드(수익)’였다. 시장에서는 그가 웨어칸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시장에 ‘K-금융’의 DNA를 심어줄 것으로 본다.

◇인도에서 펼쳐는 박현주의 꿈 = 왜 인도일까? 인도는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곳이다. 인도는 올해 초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가로 떠올랐다. 여기에 기업들의 높은 이익 증가율, 적극적인 정책 지원, 미국과의 연대 강화, 글로벌 탈중국화의 추세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모빌리티

증권시장 시총 4兆 세계 6위  
올 IPO 건수는 5위 홍콩 추월

미래에셋증권 해외사업 20년  
12개 해외법인·3개 해외사무소  
해외법인 순익 2000억대 성장

수요가 폭발적이다. 10월 인도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고, 인도의 10월 항공유 수요는 44개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시도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최근 3년 새 1조 달러가 불어나 4조 달러(약 5250조 원)를 돌파했다. 세계 5위 홍콩 증시 시총은 4조7000억 달러(약 6200조 원)다.

인도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 건수는 이미 홍콩 거래소를 추월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EY에 따르면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와 봄베이증권거래소의 올해 IPO 건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20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홍콩 거래소 IPO 건수는 61건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중국 선전거래소(126건), 상하이거래소(99건)의 IPO 건수도 인도



에 못 미쳤다. 막혔던 직접투자 길도 열릴 전망이다. 최근 인도 금융당국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 길을 터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선 미래에셋증권이 웨어칸 인수를 계기로 첫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더불어 해외법인 출자금이 유사시 동사의 펀더멘털을 뒷받침할 핵심 요인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척자 정신으로 해외 진출... 글로벌 톱티어 IB 도약 = 1997년 7월,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받던 인물 박 회장은 모험을 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경제의 중심인 영미권에 진출했고,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까지도 발을 넓혔다. 9월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12개 해외법인과 3개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중이며,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14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법인 순이익 성장세도 가파르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박현주 회장이 2018년 4월 GSO(글로벌 전략 고문)로 취임한 이후 해외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7년 660억 원에 불과했던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순이익은 2020년 업계 최초로 해외에서 연간 세전순이익 2000억 원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2021년에도 2432억 원을 달성하면서 4배 가까이 성장을 이뤄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1등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고객들의 삶의 증진과 풍요로운 노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사업 초적자를 확보하고,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연 기자 hihello@

## ‘따따블 2호’ LS머트리얼즈, 단숨에 시총 1.6兆

상장일 300% 오른 2만4000원

LS머트리얼즈가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기록했다. 12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LS머

트리얼즈는 공모가 대비 300% 오른 2만4000원에 마감했다. 6일 상장한 케이엔에스에 이어 두 번째다.

2021년 설립된 LS머트리얼즈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커패시터와 자동차

가전용 알루미늄 부품 등을 제조·판매한다. 올해 초에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기업인 오스트리아 ‘하이’(HAI)와 합작법인 ‘하이엠케이’를 설립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 NH투자증권, 자폐인사랑협회 문구세트

47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NH투자증권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4700만 원 상당의 문구세트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NH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박상호 대표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박성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NH투자증권이 전달한 문구세트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 인천’에서만 생산된 문구이다. NH투자증권은 1월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 인천’과 ‘브라보비버 경기’에 각각 약 1억2000만 원, 1억 원 규모 지분을 투자해 발달장애인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꾸준히



박상호(왼쪽) NH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대표와 박성열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문구세트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NH투자증권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박상호 NH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대표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기부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KB운용, 업계 첫 ‘미국채30년커버드콜 ETF’

美장기채권 투자해 안정적 월배당

KB자산운용이 14일 업계 최초로 미국채30년커버드콜상장지수펀드(ETF)인 ‘KBSTAR 미국채30년커버드콜(합성) ETF’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KBSTAR 미국채30년커버드콜(합성) ETF’는 미국 장기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월배당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LT) 2% OTM Covered Call Index’다. ‘TLTW’로 잘 알려진 ‘아이세

어즈 만기 20년 이상 국채 바이라이트 전략ETF’의 구성종목인 잔존만기 20년 이상의 미국채 40종목과 해당 ETF의 콜옵션으로 구성된 커버드콜 지수다.

KBSTAR 미국채30년커버드콜(합성) ETF는 기초자산인 미국채 30년물에서 발생하는 쿠폰이자와 매달 발생하는 콜옵션프리미엄으로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ETF 시장 몸집 키웠지만... 종목·운용사별 ‘부익부빈익빈’

### ‘증시의 맛집’ ETF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20조 원대로 덩치가 커졌다. 하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쏠림현상이다. 거래량이 매우 적어 유동성이 적어 일명 ‘좀비ETF’라 불리는 종목이 다수인데다 운용사별 쏠림 경향도 커 소수 운용사가 대다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00조시대 열렸지만... 난립하는 좀비·자투리ETF =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일평균 거래액이 500만 원 이하인 ETF 종목은 45개로 전체 종목의 5.6%를 차지한다. 이 기간 ETF 종목별 일평균 거래액은 44억7000만 원이다. 해당 종목들은 평균치의 0.1% 수준으로 거래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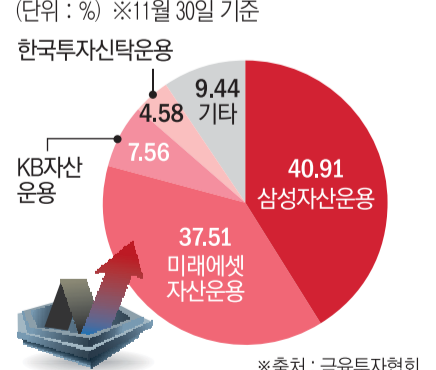
같은 기간 거래액 상위 50개 종목의 일평균 거래액은 480억 원으로, 평균 거래액의 10배를 넘어선다.

올해 1~11월 ETF 전 종목 거래대금은 66조6870억 원, 같은 기간 거래대금 상위 50개 ETF의 거래대금 총합은 54조2350억 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81%를 상위 50개 종목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말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 원이 넘는 ETF 종목은 82개로 전체 ETF의 10.2% 수준이다. 전체 ETF 803개 종목의 평균 순자산총액은 1512억 원이다.

거래량이 적은 초저유동성 종목은 호가가 실제 가치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커져 기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 운용사별 ETF 시장 점유율



많아진다. 이에 거래소는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6개월간 일 평균 거래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투리ETF’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요건을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 올해 해당 요

상위 50종목 일평균 거래액 ‘평균치 10배’  
빅2 운용사 순자산총액 점유율 78% ‘쏠림’

건을 충족하지 못해 나온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는 37건이다.

◇점유율 1·2위가 양분하는 ETF 시장... 수익성 고민 커져 = 운용사별 격차도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규모는 각각 49조6765억 원, 45조5478억 원으로 전체 ETF 규모 121조4286억 원 중 78.42%를 점유 중이다.

운용 규모 3위인 KB자산운용은 9조1826억 원, 4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5조5661억 원으로 각각 전체 규모의 7.56%, 4.58%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삼성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의 2강 체제가 견고한 상황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형 운용사

들의 순자산 규모도 함께 늘었지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운용보수인하 경쟁이 이어지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경쟁이 격화하면서 ETF 운용보수인하가 이어지는 등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운용사들은 ETF 브랜드 이름 변경 등을 검토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KB운용(브랜드명 KBSTAR)은 관련 사내 공모전을 진행했고, 한화자산운용(ARIRANG), 키움자산운용(KOSEF), NH아문디자산운용(HANARO) 등도 ETF 브랜드명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pmk8989@

# ‘IPO 담보’ 컬러... ‘제2의 B마트’로 새해 뽐박질

## 신사업 ‘퀵커머스’ 낙점

마켓컬리와 뷰티컬리를 운영 중인 새벽 배송 업체 컬러가 내년 새해 첫 신사업으로 ‘퀵커머스(Quick Commerce)’를 낙점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를 만들고 주문 즉시 배달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의 ‘B마트’와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컬러는 퀵커머스를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정하고 배민의 B마트와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규 사업 론칭 시점은 이르면 내년 1분기다. 컬러는

## 전년보다 매출액·실적 회복세

서울 주요지역 다크스토어 개설 생활용품 등 즉시 배송 가능해져 론칭엔 다수 라이더 확보가 관건 타 기업 실패사례 많아 불투명

현재 서울 주요 지역에 다크 스토어(Dark Store)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업체와 논의 중이다. 다크 스토어는 ‘불 꺼진 슈퍼마켓’이라는 뜻으로, 도심 내 소규모 물류 거점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다. MFC는 오프라인 거점이나, 현장에서 상품을 팔지 않는다. 온라인 주문 시 즉시 포장, 배송이 가능한 상품 보관

창고 겸 물류센터 역할을 한다. 컬러는 퀵커머스 론칭을 위해 배달대행업체와도 협의 중이다. 컬러는 자체 배달 라이더(기사)가 없기에 다수의 라이더 확보가 필수적이다.

컬리의 퀵커머스 추진은 IPO가 좌초된 상황에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컬러는 IPO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 평가 받기 위한 신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컬러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5288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또 40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전년과 대비 손실 폭을 35% 가량 줄이며 실적 회복세다.

퀵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컬러가 직접 확인한 것도 신사업 추진 이유다. 앞서 컬러는 6월 간편식 세트를 점심시간에 주문하면 저녁 전 바로 배송하는 행사를 2주간 진행, 퀵커머스 사업성을 사실상 테스트했다. 컬러 측은 당시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컬리가 내년 1분기 내 서울 주요 도심에 MFC를 열고 퀵커머스에 나설 경우, 신선식품부터 냉동간편식, 생활용품, 뷰티제품 등의 즉시 배송(30분 이내)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컬러만의 차별화 상품군으로 소비자 공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컬러는 식품 자체브랜드(PB) KF365(컬리프레시365)와 비식품 PB KS365(컬리세이프365), 프리미엄 라인 컬리스(Kurly's)를 비롯해 컬러에서만 판

매하는 컬러온리(Kurly Only) 등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퀵커머스 사업이 컬러의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퀵커머스는 배달 라이더, MFC 등 초기 비용이 특히 많이 든다. 배민(B마트), 요기요(요마트)와 경쟁을 벌였던 쿠팡이츠가 이츠마트 서비스 구역을 대폭 축소할 것도 비용 부담이 컸던 탓이다. 쿠팡이츠는 8월 말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이츠마트 서비스를 종료하고 현재 송파·강동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컬리 관계자는 퀵커머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금 서비스하는 샛별(새벽)배송, 택배배송 외에도 다양한 판매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신사업 계획을 부정하지 않았다. 유승호 기자 peter@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팀홀튼 신논현역점 전경.

## ‘캐나다 뺨다방’ 韓시장 본격 상륙 스벅보다 아메리카노 500원 저렴

### 가보니 팀홀튼 1호점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나오자, 캐나다 유명 커피 전문점 ‘팀홀튼’ 1호점의 빨간 단풍 마크가 눈에 들어왔다. ‘단풍국’ 다운 외관이었다. 팀홀튼은 전 세계 15개국 570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선 신논현역 1호점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150개 매장을 열겠다는 포부다.

팀홀튼은 14일 정식 매장 오픈에 앞서 1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커피 시장 진출 배경과 향후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팀홀튼은 세계 최대 QSR(퀵 서비스 레스토랑) 회사인 RBI그룹의 자회사다. 라파엘 오도라지 RBI그룹 아시아총괄 사장은 “커피 시장이 성숙한 한국은 외국 브랜드가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객 심층 조사를 통해 새 브랜드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파악했고, 팀홀튼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은 팀홀튼이 필리핀, 중국, 인도, 태국,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에 이어 일곱 번째 진출한 국가다.

팀홀튼 국내 1호점에선 글로벌 매장에서 특히 인기 많은 메뉴인 더블더블, 아이스캡, 프렌치바닐라 등 시그니처 메뉴를 전면에 내세운다. 또 한국시장만을 위해 개발한 ‘메이플라떼’를 포함한 커피 음료 46종과 아

이스캡 8종, 논커피 음료 14종, 총 22종 도넛·샌드위치 등 제조 메뉴 기준 약 90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팀홀튼만의 시그니처 메뉴인 따뜻한 샌드위치 ‘멜트’도 처음 선보인다. 주문 즉시 조리하는 신선함을 앞세워 △메이플 치즈 멜트 △메이플 햄앤치즈 멜트 △크리미 스파이시치킨 멜트까지 한국시장을 위해 3가지 메뉴를 개발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커피 가격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미디엄 사이즈 기준 △아메리카노 4000원 △카페라떼 4600원이다. 국내 카페 시장 점유율 1위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355ml)의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500, 400원 저렴한 셈이다. 다만 캐나다 현지에서 팀홀튼이 국내 ‘뺨다방’ 못지않은 가성비 커피로 통하는 것에 비해 싸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캐나다에선 아메리카노가 2490원, 카페라떼 3252원으로, 한국이 각각 61%, 41% 비싸다. 1729원인 브루 커피의 경우, 한국은 3900원으로 125%나 비싸다.

가격 이슈에도 팀홀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알렉 로바스키 팀홀튼 커피 이노베이션 수석매니저는 “고산지대 최고의 커피 생산지에서 수급한 100% 프리미엄 아라비카 원두만 사용한다”며 “또 60년 커피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글·사진 문현호 기자 m2h@

## 따뜻한 겨울맞이에... 패션업계 ‘진땀’

### 재고자산 증가 골머리

엔데믹으로 실적 부진 늪에 빠진 패션업계가 ‘재고자산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겨울 시즌임에도 최근 봄날씨를 방불케하는 따뜻한 기온 탓에 제품 판매가 둔화, 수익성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패션업체(한섬·LF·F&F·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재고자산은 1조8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업체별 재고자산을 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한섬은 652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LF는 4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고, 에프앤에프(F&F)는 3932억 원으로 20% 증가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도 3376억 원으로 5% 늘었다.

패션업계에선 재고자산 증가는 악재나 다름없다. 재고가 늘수록 관리 비용 지출이 늘고, 패션업계 특성상 유행 및 계절이 지나 상품 가치가 떨어진 의류는 재고 처분도 쉽지 않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패션업체들이 골칫덩이인 재고자산을 처리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점

### 3분기 주요 패션업체 재고자산

(단위 : 억원) ※ ( )는 증감률

한섬	6522(17%)
LF	4962(14%)
F&F	3932(20%)
신세계인터내셔널	3376(5%)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엔데믹에 ‘얕친 데 덮친’ 실적부진 계절·유행 지나 상품가치 떨어져 물가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도 한몫 업계 ‘전략적으로 재고자산 늘린다’

다. 통상 가을·겨울은 패션업계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겨울 날씨가 워낙 따뜻한 탓에 판매가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도 부정적인 이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특히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올 10월 5.7% 상승했다.

이처럼 잠재적 위험 요인이 다수 발생하자, 패션업계의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은 않다. 에프앤에프에 따르면 한섬의 4분

기 매출은 4508억 원,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2%, 30%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LF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각각 29%,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는 공격적인 매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재고자산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긴 했으나, 재고자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짜내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이다.

LF 관계자는 “재고자산은 불확실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미리 비축해두는 것”이라며 “조만간 온라인 쇼핑몰과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통해 재고자산을 매출로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 영 마거릿 대처가 사랑한 위스키 ‘글렌파클라스’ 한국 상륙

### B2B 판매만 하다 소비자 공략 나서

영국 대처 수상이 사랑한 ‘세계 3대 웨리 캐스크(와인 숙성통)’ 위스키 브랜드 ‘글렌파클라스’가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국내 위스키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자 물량을 확대하고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증류기 하단을 직접 가열해 원액을 제조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만큼 글렌파클라스는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안 맥윌리엄(Ian McWilliam) 글렌파클라스 스코틀랜드 본사 글로벌사업 총괄책임자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국내 미디어 행사에서 “글렌파클라스는 양보다 품질에 집중하는 증류소”라며 “스코틀랜드에서 5대째 가족 경영하



왼쪽부터 글렌파클라스 15년, 글렌파클라스 105, 글렌파클라스 30년. 사진제공 윈스턴스 코리아

는 독립 디스틸러리(증류소)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글렌파클라스는 영국 마거릿 대처 수상이 좋아했던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맥켈란·글렌도낙과 함께 세계 3대 웨리 캐스크 위스키로 평가받는다. ‘자주 독립의 정신’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1865년 스코틀랜드 농부였던 존 그란트(Grant)가 증류소를 매입한 이후 5대에 걸쳐 가족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란트 일가는 아직도 증류소 옆에 거주하면서 위스키 생산과 품질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글렌파클라스는 그동안 한국에선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위스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우선 선보일 주력 제품은 ‘글렌파클라스 105’와 ‘글렌파클라스 15년·30년’ 3종이다. 105는 세계 최초 원액 그대로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랭스’ 방식으로 제작했다. 물로 희석하지 않기에 위스키 본연의 깊은 맛과 말린 과일, 버터 스카치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15년·30년 제품은 같은 연산 제품 중에서도 뛰어난 아로마 향이 장점이다. 김지영 기자 kiy42@

〈전자기필스〉

# “안보는 민생... 北 EMP 위협 맞서 방호체계 구축해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  
“북한 핵 EMP 능력 보유 판단”  
서울 상공에서 EMP 터트리면  
한반도 정전·통신망 등 무력화  
“전문가 육성... 비상발전기 활용”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북 EMP 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 방안 포럼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시

“현대전(戰)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2005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현대전의 성격을 간파한 후 북한은 전자정보전 능력을 꾸준히 길러왔다. 수도 서울에는 주요 도심 인프라인 전기·통신·데이터 관련 시설이 몰려 있어 EMP(전자기 필스) 공격은 더 치명적인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파괴자’, EMP 위협에 대비한 ‘K-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 방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EMP 공격 피해를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MP는 고출력 전자기파로, 전력망·통신장비·군사시설·전자기기 등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식의 핵EMP와 고폭 화약의 폭발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비핵EMP로 나뉜다.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포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 상황은 늘 긴장을 요한다”며 “EMP 심각

성을 실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텐데 서울시포럼 시리즈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안보는 제1의 민생’이란 글을 올리고 북한이 핵무기, 화학무기, EMP 등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급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핵무기를 고고도에서 터트렸을 때 EMP가 자동 발생하는 것이기에 북한이 핵 EMP 능력을 보유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북이 작년 11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킨다고 표현한 건 EMP 시험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상공에서 핵EMP가 폭발할 경우 위력 범위가 한반도 전역에 해당한다”며 “정전사태, 통신망·인터넷·데이터센터 마비, 항공기 추락·이착륙 제한, 주유소 화재·철도운영 중단·차량기능 고장·상하수도 기능 마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심 주요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문명사회의 재앙’이라 불리는 EMP 위협이 ‘발등의 불’로 닥쳤지만, 대비실태는 부족하다. 이 실장은 “비핵EMP는 아예 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설치·운영 규정 모순과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으로 한정된 지역만 방호를 하고 있고 전문가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도심 주요 인프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호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도시의 혈관망·신경망·뇌에 비유되는 전기·통신·데이터 시설을 방호하고, 또 복구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력 사용량은 39%로 높은 반면 서울의 자립률은 8.9%로 지자체 중 꼴찌다. 도심 속 비상발전기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추가적인 전력 공급 없이 대비가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통신은 한국형 스타링크 개발을 주목해볼 만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한 스타링크의 경우 일부 파괴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기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의 도시화 현상은 특히 심각하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해 수도권은 원전 40기가 있어야 운영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규모 분산형 데이터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실장은 “도시형 방호체계인 K-인프라 개발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 “형사도 특허법원서 심리, 전문성 강화”

檢·法, 지식재산 침해사건  
‘병존 관할’ 부여 방안 검토  
대전검찰청에 수사·기소권  
기술침해 양형기준 개정 예정  
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논의

등으로 ‘특허소송 실무연구회’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 문제점과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술유출·침해 사건에서의 양형 문제’를 검토한 김혜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검사에 따르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이 △국외 유출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국내 유출은 5년 이하 → ‘10년 이하’로 상향됐음에도, 양형 기준상 가장 구간은 국외 침해는 2~6년, 국내 침해 1~4년으로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다.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원이 전문 법원에 지식재산 침해 형사사건 ‘병존(중복) 관할’을 부여하는 관할 집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까지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통일성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윤용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 검사는 12일 본지에 “현재 기술유출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형사 재판까지 특허법원이 몰아서 심리하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에 특허법원이 위치한 관계로 관내 대전지검은 2015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2월 전담 부서인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돼 반도체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 국가 핵심기술 국외유출 사건, 스마트폰 소재 연성동박적층판 (FCCL) 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서 성과를 냈다. 대전고등검찰청(임관혁 검사장)과 대전지검(박재익 검사장)은 최근 특허청·한국과학기술원(KAIST)·한남대와 공

김 검사는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실형 선고비율은 10%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법원은 올해 6월 제12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실무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로 유출된 자료 중 침해된 영업비밀을 신속히 선별하기 위해 전문자문관 제도를 확대하는 대책이 협의되고 있다.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등 주요 검찰청에 특허청 심사관 총 10명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이다. 임관혁 대전고검장은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업을 통해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지식재산권 보호자로서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외식업 성공 노하우 배울래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민시장남페스타에서 외식업자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배민시장남페스타는 배달의민족이 보유한 배달, 상권, 주문 등의 데이터 기반 통계 정보와 외식업 전문가 강연, 성공한 외식업자들의 노하우를 한 자리에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행사로 올해 처음 진행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사망퇴직금,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회사 절반만 지급하자 유족 소송  
대법 ‘상속인의 고유재산’ 첫 명시  
원심의 20% 지연손해금은 기각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그 사망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건은 사망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2012년 A사에서 재직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며 약 1억800만 원의 사망퇴직금이 발생했다. 원고인 가족들은 이 사망 퇴직금 청구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 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A사는 사망퇴직금 중 절반만 공탁해 가족들은 5400만 원의 사망퇴직금만 안분 배당받게 됐다. 이에 가족들은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A사에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족들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며 그 중 절반에 이워진 회사의 집행과 배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추가로 회사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절반의 사망퇴직금에는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이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 내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후에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유족은 상속인으로서 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연 20%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금 여부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abc123@

# “교통지옥이나, 요충지나… 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 인터뷰

###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는 2025년, 강동구의 ‘운명’이 결판날 것이라고 봤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의 강동구 경유 여부에 따라 동부수도권을 잇는 교통요충지로 발돋움할 수도,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는 교통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플랜B는 없냐고 하자 “배수진을 쳤다”고 했다. 서울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강남과 이웃하고, 경기도 구리·하남에 둘러싸인 ‘알곡은’ 운명이 강동구를 절박하게 만들고 있었다.

12일 본지와 만난 이 구청장은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다”고 운을 뗐다. 5·8·9호선이 각각 하남·구리·남양주로 연장되면서 출퇴근 ‘지옥철’이 펼쳐질 날이다. 그는 “지하철 연장으로 경기도 신도시가 종점과 기점이 되고 출근 시간 딱 차서 들어오면 강동구민들은 탈 수가 없게 된다”며 “현재 김포골드라인 상황이 재연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연장을 완료한 5호선은 증차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근대란을 겪고 있다. 이 구청장은 “GTX 같은 광역철도망이 들어와 분산을 시켜야 한다”며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교통 얘기가 빠진 메가시

“교통 해결 안되면 서울편입도 대안 못돼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경유 검토 설득  
스카이워크 조성 등 한강변 개발도 추진  
한강 접근성 개선 병행해 젊은층 유입↑”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강동구청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동구청

티 서울 논의가 이 구청장에겐 한가롭게 들릴 뿐이다. 최근 구리·하남도 서울 편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구청장은 “교통이 해결 안된 상태에선 편입을 하든 말하든 더 나아질 게 없다. 서울이 된다고 그냥 집값이 오르고 더 살기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만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편입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스스로에 대해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을 낙관

적으로만 보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처럼,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취임 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문가들과 접촉, 강·약점을 지도받고 논리를 보충했으며 키를 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몇 번이고 만났다. “대규모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봄업’을 시킨 거지요” 진심이 통한 결과.

원 장관은 최근 “GTX-D의 강동 경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구청장이 ‘봄업’을 베푸는 건 또 있다. 강동구가 가진 천혜의 자원이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그림의 떡’이 돼버린 한강변 개발. 그는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가 제일 큰데, 한강 수계 따라 경기도는 빠지고 강동구가 속한 경우가 있다”며 “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녹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그린벨트로 아직 묶인 데는 길을 내서 단절된 걸 연결시켜야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통과 한강 접근성이 개선되면 이미 젊은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강동구엔 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학군도 괜찮은 편이라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까지 보내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구는 아이맘 택시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교사대 아동 비육 축소 등 선도적 정책을 펼치며 서울시 자치구 중 2년 연속 함께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또다시 행정가로 변신한 이 구청장은 “행정이 방향타를 쥐고 끌고 가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성과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주민참여형 구립송파극단, 16일 창단공연

### ‘너는 누구 그리고 나는’ 단원 24명 참여

송파구의 주민참여형 극단인 ‘구립송파극단’이 창단 공연을 선보인다.

12일 송파구는 16일 오후 5시 송파구민회관 대강단에서 ‘구립송파극단’ 창단 연극 ‘너는 누구 그리고 나는’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립송파극단은 연극을 향한 열정과 재능을 지닌 구민들이 8월 창단한 극단으로 고등학생, 교사, 주부, 회사원, 시니어모델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총 24명의 단원들은 4개월간 일주일에 2번

씩 만나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에 선보일 연극은 ‘생의 문턱(박수경 작)’을 각색한 것으로,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다.

극단을 이끄는 김정환 예술감독은 “연극이 처음인 구민들로 능숙한 프로는 아니지만 한마음으로 연습에 몰두해 멋진 작품을 완성했다. 열정과 노력이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며 관객들에게 진솔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14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전 예약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소원 이뤄지는 마법의 마을로” 강서구 ‘마곡위시빌리지’ 축제

서울 강서구에서 첫 마곡문화의 거리 축제가 열린다. 12일 강서구는 15~31일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제1회 ‘마곡 위시 빌리지’ 마곡 문화의 거리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주제는 ‘소원이 이뤄지는 마을 마곡’으로, 5호선 마곡역에서 발산역 사이 마곡 문화의 거리에 LED 조명·트리 등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부스, 엔틱 가로등, 루돌프 등 다양한 조형물에서 사진을 찍으며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5~10시로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현장 사진과 함께 소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이벤트 ‘소원을 말해봐’도 진행된다.

15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스페이스K 서울 미술관 앞에서 마곡 문화의 거리 조형물 준공 이벤트도 열린다. 9월 설치된 마곡 문화의 거리의 불거리를 더 하고 있는 민들레, 수직정원 조형물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 커피 등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연말을 맞아 마곡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따스한 연말을 선물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축제를 처음으로 기획해 선보인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월호 발매



### BRAVO SPECIAL 마지막을 위한 시작, 웰다잉

- PART 1. 웰다잉 정착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
- PART 2. 마지막 순간, 스스로 결정해도 될까?
- PART 3. 해외의 웰다잉 문화, 가장 죽기 좋은 나라의 ‘죽음’
- PART 4. “시로 다시 만나다” 디지털 웰다잉 신세계
- PART 5. 죽음으로 되새긴 삶의 의미, 눈물의 임종 체험



### BRAVO INTERVIEW



가수 김정민  
지금껏 치열하게 사는, 옛날 사람



시니어연극단 대학로 老 배우 유만석  
스물셋에 접은 꿈, 일흔여덟에 펼치다



레시피  
굴국밥과  
매생이굴전  
법률 가이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유언’ 어떻게 준비할까



브라보 여행  
유달산 기슭에  
깃든 골목 이야기,  
레트로 목포



귀농귀촌  
돈 벌 생각 없이 농사를  
취미 삼아 즐기는 까닭은?



하방비책  
겨울철 시니어  
척추 건강 관리법



지역문화유산순례기  
돌담장 따라 조선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고택들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람을 향한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작합니다



## 살고 싶은 집과 도시, 국민의 행복을 위한 8대 비전



고품질 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km<sup>2</sup> 조성



국가 균형발전  
지원 강화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청렴고객만족·안전  
최고등급 달성

# 한국계 셀린 송 감독 영화, 골든글로브 5개 부문 후보

〈'패스트라이브즈'〉

작품·감독·각본·여우주연 등 '넘버3' 송능한 감독 딸인 송 감독의 자전적 경험 바탕 한국계 이민자 남녀의 이야기 이미경 부회장 총괄프로듀서



영화 '패스트라이브즈' 감독과 배우들이 지난 2월 19일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 배우 유태오, 한국계 캐나다 감독 셀린 송, 한국계 미국 여배우 그레타 리, 미국 배우 존 마가로.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라이브즈(Past lives: 전생)'가 내년 1월 7일 열리는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주최측이 발표한 제81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패스트라이브즈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한국 배우 유태오와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가 주연했으며 어린 시절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해성과 나영 두 남녀가 나영의 캐나다 이민으로 헤어진 후 20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호평을 받은 뒤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독립영화·드라마 시상식 고

섬어워즈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송 감독의 캐나다 이민 등 자전적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감독은 한국에서 태어나 12세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 퀸즈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극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연극과 영화 연출 경력을 쌓았다. 송 감독의 집안은 한국 영화계에

서 유명하다. '넘버3(1997)'와 '세기말(1999)'을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자, '만다라(1981)'와 '길소뜸(1986)' 등의 시나리오를 쓴 송길한 작가의 조카다.

한국 영화 무대를 세계로 확대하는데 선봉에 선 것으로 꼽히는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이 작품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에 참여해 이목을 끈다. 이 부회장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각본상·작품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과



이미경 부회장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수상작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등의 총괄제작자로 활약했다.

작년에는 제50회 국제에미상에서 공로상을 받으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지난달에는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가 발표한 '2023 엔터테인먼트 여성 파워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13일에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현재 미국 아카데미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패스트라이브즈'와 함께 골든글로브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에서 경쟁하는 후보는 올해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아나토미 오브 어 폴(추락의 해부)'과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작인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플라워 킬링 문', '마에스트로', '오픈하이머' 등이다. 이진영 기자 mint@

## LIG넥스원 신임 사장에 공군 출신 신익현 부회장



LIG넥스원 신임 사장에 신익현(사진) C4 ISTAR 사업부부장(부사장)이 내정됐다. 5년간 LIG넥스원을 이끌었던 김지찬 사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을 맡는다.

LIG넥스원은 신 부문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사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장직을 수행하며,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에 오를 예정이다.

신 사장은 1984년 공군사관학교 32기로 입관해 2007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2010년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2013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처장 등을 지낸 뒤 2015년 전역했다. 2017년 12월 LIG넥스원에 전략기획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뒤 감시정찰사업부장, C4 ISTAR(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표적획득)사업본부장, C4 ISTAR 사업부부장 등을 맡았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대동, 원유현 대표 부회장 승진



대동은 기존 사업의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 강화와 미래 사업 가속화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동은 부회장 1명, 부사장 1명, 전무 2명, 상무보 2명 총 6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대동 공동대표이사인 원유현(사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원 부회장은 그룹 미래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대동의 경영 고도화와 창조적 조직 문화 정착을 추진해 5대 미래사업의 초석을 만들었다. 대동 C/Biz부부장인 박준식 전무는 올해 국내 및 북미 트래커 시장 감소에도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통해 해외 시장 성장을 이끌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지영미 질병청장 "백신 있는 호흡기 질환, 백신 맞는 게 최선"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신종 감염병 아냐...항생제로 치료 가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2일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 대해 "이 고비를 잘 넘기려면 호흡기 질환 중 백신이 있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년 넘게 마스크를 잘 쓰면서 호흡기 질환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개인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면서 다시 늘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고, 계절독감은 유행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껴도 백신을 맞는 게 신체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계절독감처럼 백신이 잘 나와 있는 것들은 꼭 맞아서 사전에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계절독감에 비해 낮은데 대해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현재까지) 39%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연간 39% 정도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접종률이 높은 편"이라며 "(계절독감과) 동시접

종 효과로 높아진 면이 있고, (지금도) 당일접종, 방문접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는 합성항원 방식의 XBB(오미크론 하위변위)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돼 사용될 예정"이라며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기피하는 분들은 노바백스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 감염증 유행에 대해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신종 감



지영미(오른쪽)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질병관리청

염병이 아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선 과장된 측면에 있다고 말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중국도 안정화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진 질환이고, 백신은 없지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SDX재단 'ESGG' 출판기념회

에스디엑스(SDX)재단이 19일 오후 2시 판교에 있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전한 SDX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환경전문가들이 공저한 'ESGG: 이제 지구와 공감 할 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ESGG는 지구적 윤리관(Ethical)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법(Sustainable)을 강구하여 지구적 선(Global Good)을 추구하기 위한 비전 및 실천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이 책은 유제철 전 환경부차관, 흥은표 한국 ESG경영개발원 이사장, 이찬원 경남대 명예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정규 BCG 싱가포르 파트너, 이준호(주)333 대표, 김일동 현대미술작가, 정형철 수원대 교수, 김미성 SDX재단 조직위원장, 신항숙 SDX교육연구원장 등 환경 관련 전문가 14명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김병진 전일목재·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4분기 자랑스러운 중기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는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으로 김병진(왼쪽 사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일목재산업의 김병진 대표이사는 1978년에 설립된 선대 가업인 전일제제소를 1997년 승계한 후 원목의 수입, 유통부터 제재, 가공, 방부, 집성 등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설비라인을 갖추고, 목재 팔레트, 건축 및 조경 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가공품을 공급하는 업계 10위권 내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정석케미칼은 노면표지용 도료 페인트를 주력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노면표지용 도료인 용착식페인트의 미국 연방 표준규격 테스트 통과를 통해 국내 최초 미국 공급망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전고체 전지에 필수재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황화리튬(Li<sub>2</sub>S)의 양산설비를 2022년 국내 최초로 구축해 국내외 주요 전기차 관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부음

▲조한승씨 별세, 조인상(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명희·영익(한국증권금융부 사장)·명상(하나은행 과천금융센터지점장)씨 부친상, 이재민(사업)씨 장인상=12일, 수원오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031-640-9797

▲이옥순씨 별세, 이용배(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12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2-3010-2000  
▲최순양씨 별세, 구중필(세종교육청 소통담당관)씨 모친상=12일, 충남 서천군 신협서해병원장례식장 특1빈소,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41-953-4440

▲김용기(전 KT 뉴욕지점장)씨 별세, 김선옥씨 남편상, 김남훈(홍콩 트레이더사 채권 딜러)·경택(유한회사 하이코스리테일 팀장)씨 부친상, 박미정·신혜원씨 시부상, 김도현·김승주씨 조부상=1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20분, 02-3010-2000

##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충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과장급 승진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채의석 ◇과장급 전보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김지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박연규 △물리표준본부장 권수용 △화학바이오표준본부장 이경석 △양자기술연구소장 최재혁 △안전측정연구소장 이진환 △성과혁신부장 강노원 △경영기획부장 김양훈 △경영지원부장 최대우 △인적자원실장 이정숙

◆미래에셋증권 ◇승진 △전무 성주완 ◇직책 임명 △PI부문 대표 서철수 △리서치센터장 박희찬

◆쌍용C&E [쌍용C&E] ◇전무 승진 △김재중 백승명 ◇상무 승진 △편우식 [쌍용기초소재] ◇상무 승진 △안병주 [한국기초소재] ◇상무 승진 △정석호 [대한시멘트] ◇상무 승진 △배동용

◆하이트진로 <승진> ◇상무 △최욱도(관리부문) △전장우(연구소) ◇상무보 △송민철(해외사업부문) △김영업(영업부문) △유재하(영업부문)

마감 후



서지희  
정치경제부 차장

“너 어디 (대학)과 갈 건지 정했어?” “나 심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다 통합돼서 ‘심리생활체육미디어국어영문학과’ 가려고.”

‘심리생활체육미디어국어영문학과’에 가고 싶은 고3 학생은 입시 설명회에 간다. 학생은 1명, 수

십 명의 대학교 총장들이 참석해 직접 학교 홍보에 나선다. 개그맨 출신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 ‘키서비스’에서 그려본 2033년의 모습이다. 초저출산시대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이처럼 맛깔나게 표현한 콘텐츠가 또 있을까.

‘한국’과 ‘초저출산’ 단어 사이에 등호(=)가 붙었다. 해외에서도 걱정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 “(한국)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

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출산은 곧 양육자(한부모, 두부모, 입양, 조손가정 모두)들의 심리적·경제적 책임의 시작이다. 아이의 마음과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양육자의 바람, 사랑, 관심, 걱정 등 새로운 감정을 마주해야 하고, ‘의·식·주’ 기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도 준비해야 한다. 양육자의 심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육아 환경은 달라진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보고서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며 호주의 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 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

GDP 걱정해 아이 낳을까

기에 한국은행도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 추세(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 경고를 담았다.

한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엄중한 메시지에 분명하다. 그런데 ‘출산’에 대한 접근 논리, 잘못됐다. ‘저출산국가’란 5음절에는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는 ‘출산’과 국민·영토·주권을 갖춘 집단 ‘국가’란 단어가 나란히 붙어있다. 개인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단어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다 국가가 망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관점에서 본 초저출산시대 접근 논리는 ‘초저출산 → 생산가능인구 급감 → 국가 위기론’이다. 국가의 미래가 어두우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은 출산율, GDP라는 국가통계

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됐는지를 말하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저출산 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아니다.

해당 정책을 수혜한 아이와 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의 기본 요소에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제도다.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는 두말할 것도 없다.

평균 기대수명 82.7세(2022년 기준)다. 정부는 숫자(출산율, GDP) 걱정 이전에 개인의 한 생애가 평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지 반문하고, 또 반문해야 한다. 아이의 한 생애가 평탄하길 바라는 부모는 경제성장률을 걱정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 jhsseo@

‘北 전쟁능력’ 대응체계 시급하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前 한국항공대 교수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형 천리마-1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모두 실패했다. 10월에 추가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은 1개월의 추가 시간이 흐른 11월 21일 밤 10시 43분께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한 끝에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우선 천리마-1 발사체와 만리경-1호 정찰위성의 진실 확인을 위해 발사의 기술적 특성과 의문점을 살펴보자. 첫째, 천리마-1 발사체의 비행 궤적은 두 번씩이나 큰 각도의 요(Yaw) 기동을 하며 태양동기궤도로 진입했다. 그만큼 추진제 소모 및 기술적 리스크도 컸다. 왜 그랬을까. 천리마-1 발사체의 1단 추진체는 화성-17형 ICBM과 동일한 2쌍의 쌍둥이 백두산엔진을 장착했다. 1단 추진체의 기술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분리된 1단을 가능한 중국 쪽에 낙하되도록 발사각을 조정했다. 심지어 1단 추진체 분리 후에 잔해물을 수거할 수 없도록 공중에서 의도적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천리마-1 발사체의 1차와 2차 발사는 신형 발사체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 국내의 한 매체는 지난 5월 발사에서 실패한 천리마-1 발사체의 수거 잔해물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1차 발사에서 모사위성에 저가의 구형 일제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군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첫 발사의 리스크를 고려해 시험발사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형 발사체에 대한 비행데이터 획득과 비행성능 검증이 목적인 것으로 보였다.

8월의 2차 발사에서도 위성 모사체를 싣고 시험발사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2차 발사의 사고조사도 없이 마치 시험발사가 예정된 목표를 달성한 듯

이바로 10월 내 재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또한 1차와 2차 발사 시간도 의문이다. 3차 발사 시간과 달리 전자광학 정찰위성을 올려도 한반도 및 저위도 지역 통과 시에 충분한 광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만리경-1호 정찰위성의 성능 및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새로운 위성 형상과 태양전지판 크기 증가, 그리고 반작용 휠, 별 추적기, 소형 추력기

북한, 로켓발사체 독자개발 가능  
정찰위성 성능 빠르게 향상될 것  
전쟁 역지력 강화방안 마련해야

등의 장착을 통해 과거의 조약한 마이크로위성에 비해 상당히 증진된 성능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탑재 센서 및 구동기를 기준으로 설계 해상도는 최소 2~3m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으로서는 방사능 등의 다양한 우주환경에 내구성을 갖는 우주급뿐만 아니라, 상용급의 고성능 전기전자 부품(집적회로, 프로세서, 고용량 메모리, 각종 반도체 부품 등)의 독자개발도 직접구매도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정찰위성을 위한 주요 상용부품과 구성품은 제3국으로부터 불법적 구매를 통해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뉴 스페이스 위성에 저가의 상용 자동차인증부품을 사용하는 추

세다. 자동차인증부품은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인증시험을 완료한 상태여서 최소의 추가시험을 통해 위성부품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향후 제3국을 통한 자동차인증부품의 불법적 구매 및 획득은 북한이 각종 고품질, 고신뢰성의 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만리경-1호 위성의 3차 발사 성공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을까. 지난 11월 말 3차 발사에 탑재된 만리경-1호 위성은 북러정상회담이 열린 9월 이전에 이미 제작, 조립 및 시험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2개월 동안에 러시아에 의한 유의미한 위성 기술지원과 변경은 없어 보인다는 의미다.

북한은 오히려 향후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기술이전과 협력을 기대할 것이다. 고성능, 고해상도 위성개발을 위한 탑재체 기술과 탑재컴퓨터, 비행소프트웨어, 자세 및 궤도 제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낮과 밤, 굽은 날씨에 상관없이 영상촬영이 가능한 전천후 레이더영상(SAR) 위성 및 통신 감청과 전자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신호정보(SIGINT) 위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정찰위성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ICBM 기술능력을 기반으로 충분한 역량의 위성발사체 독자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고성능 정찰위성 개발능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러시아가 핵심기술이전 및 협력을 제공한다면 빠른 속도로 기술수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로서는 감시정찰능력의 확보를 통해 전쟁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북한에 대해 역지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대응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박꽃  
사회경제부 기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 새뮤얼 존슨 명언

“위대한 작품들은 힘이 아닌 인내로 일구진다.”

영국의 문학가다. 20세나 연상과 결혼해 사숙을 열었으나 실패했다. 가난과 병에 시달렸으나 풍자시 ‘런던’ ‘덧없는 소망’ 등으로 명성을 얻었고, 52명 시인의 전기를 쓴 ‘시인전’을 발표해 이름을 떨쳤다. 영국에서 ‘영어사전’을 처음으로 만들어 영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709~1784.

☆ 고사성어 / 문인상경(文人相輕)

문인들은 서로 경멸한다는 말이다. 자기 문장을 과신하는 문필가들은 동료의 글솜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양(梁)나라 때 위은 문선(文選)에 실린 전론(典論)의 내용 중 나오는 말이다. 위나라 문제(文帝) 조비(曹丕)가 한나라의 대문장이인 부의(傅毅)와 반고(班固) 둘의

문장에 관해 쓴 글에 나온다. “글 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자기야말로 제일인자라고 자부하여, 글 쓰는 사람끼리는 서로 상대를 경멸한다고 하는데[文人相輕], 이러한 풍조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반고와 부의 때부터이다.”

☆ 시사상식 / 디리스크(de-risking)

‘위험 경감’이라는 뜻. 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전략. 국제정치 분야로의 미가 확대돼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뜻한다.

세계시장에서 희토류, 리튬 등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 등에 있어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이지만, 이 전략을 통해 의존도를 줄여 중국산 희귀광물과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미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12일 배우 유아인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약 상습투약에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권유한 혐의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김형주 감독),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 드라마 ‘종말의 바보’(김진민 감독) 모두 개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 처지다.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다. 비싼 캐스팅 비용에 제작비까지 쏟아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상영·해외 판매 등으로 이윤을 내는 영상제작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까닭이다.

대형 소속사들도 ‘배우 관리 못한 죄’를 호되게 치르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배우 강지환이 2019년 드라마 스테프 성폭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자,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며 캐스팅을 하고 거액의 출연료까지 지급하는 입장이다.

상대가 ‘예상치 못한 배우 사생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계약서에 담으려 들면 통제되지 않는 배우로 인한 위험은 오롯이 제작사가 지게 되는 것이냐는 우려다.

배우 한 명이 일으키는 물의가 제 식구 같은 소속사는 물론이고 여러 제작사들의 명줄까지 쥐고 흔드는 형세다. ‘벌금 3000만 원’으로 갈음된 배우 하정우 사례처럼, 이미 큰돈을 번 당사자들은 대검찰청 마약과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을 고용해 뒷맛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다.

그이면에 그들이 일으킨 위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업계 종사자들의 프로젝트가 좌절되고 극심한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무겁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pgot@

# 챗GPT 1년... 커지는 인간의 위기

2022년 11월 30일은 인류 기술진보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가 세상에 출현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지금 실리콘 밸리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물론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이른바 첨단 기술공룡 기업들도 앞다퉀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실리콘 밸리는 잠 못 이루는 도사가 됐다.

전기나 증기기관차, 자동차 발명에 버금가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 기업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지각변동이 또다시 시작됐다.

챗GPT위기를 가장 먼저 직감한 기업은 구글. 검색엔진이 사업 생명인 구글로서는 당장 클라우드와 검색, 기타 제품에 챗봇과 인공지능(AI)기능을 추가하는 긴급 수습책을 내놨다. 당시 소리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람처럼 채팅을 하는 시스템, 즉 AI기술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었다. 다만 이 기술이 야기할지 모를 부작용과 법적 혼란을 염려해 주저하고 있었을 뿐. 그러나 챗GPT가 출시되자 세상은 발각 뒤집어졌다. 그간의 모든 우려와 근심은 아무런 문제 가 되지 않았다. 오직 파괴와 혁신이 화두였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모든 기술개발 인력을 끌어모으고 조직을 개편했다. AI 기술개발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실리콘밸리를 지배했다. 오픈AI를 공동 창업한 바 있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AI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 조직을 AI중심으로 개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결을 더 나아갔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개발에 속도를 내라고 기술팀에 박차를 가했다.

사실 메타는 챗GPT가 나오기 3개월 전에 자체 챗봇을 출시했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바람에 저커버그조차 “소름 끼친다”고 할 정도였다. 11월 챗GPT 출시 2주 전에도 과학연구와 논문용 챗봇을 내놓았으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는 그후 1년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매달리다 뒤늦게 “인터넷에서 나를 대신해 일을 해 줄

## 시론

공완섭  
제미언론인



비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제네시스라는 AI기반 봇을 개발했으나 또다시 법률팀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치인들로부터도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명 요청도 쇄도했다. 지난 2월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챗봇을 발표하기 전 이를 안 구글이 챗봇 바드를 먼저 선보이는 감빠기 작전을 폈으나 구글의 완패로 끝났다. 오류가 발견되는 바람에 주가가 8%가량 빠졌고, 순식간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가 날아갔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 발표 직후 주가가 5%나 올랐다.

다급해진 구글은 2000여 명의 연구원을 모아 제미니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투입했다. 인

공기능의 '대부' 조프리 힌튼 박사까지 총동원해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상황을 건 참단 기업들의 AI 개발전쟁을

전문가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 배기가스가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긴 했지만, 내연기관의 발명이 인간의 운명을 위협할 것이란 걱정 따윈 없었다. 그러나, 챗GPT로 인해 촉발된 지금의 개발 경쟁은 관계자들조차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기술자들 사이에선 식사 자리에서 AI로 인한 파멸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농담을 주고받는다. 5%에서부터 50%까지 다양하다. 인공지능의 천재 조프리 힌튼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쯤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편리해지고 싶은 인간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영화 매트릭스에 서처럼 AI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거나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영화적 상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규제와 통제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 기술개발 밀리면 도태 '위기' 고조 수익+편리성 결합해 치열한 경쟁 전문가들 불안...규제·통제 절실해

### 진료실 풍경

### 텅 빈 병원의 복도 끝에서서

“빠가 부러져서 얼마나 아프니? 그런데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픈 내 발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께선 기어코 내 어깨까지 쓰다듬으신다. 그리고 당신의 갈비탕 그릇에 있던 고기 한 덩이를 집어 재빠르게 내 밥 위에 얹어 주셨다.

“빠는 잘 먹어야 제대로 불는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얼른.”

어머니 말씀을 들던 중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음식이 목에 걸려 넘어갈 지 없는 난 그저 그릇만 빈 손가락으로 휘휘 젓고 있었다.

얼마 전 유방에 작은 혹이 만져진다던 어머니께선 검사상 청천벽력 같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 근처 병원 원장님께서 대학병원 유방외과로 예약을 해 주셨고, 수술 하루 전 같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였다.

‘수술이 어떻게 될지, 도대체 림프절 전이

되었는지, 수술병기(病期)는, 고령이신데 마취는 잘 견디실지...’

온갖 걱정들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내 앞에 서 큰 수술을 앞둔 당신보다 기껏 발가락뼈 하나에 금이 간 아들 걱정이 태산이다. 결국 재촉에 못 이겨 내가 고기 한 덩이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 서야 어머니께선 빙긋이 웃으신다.

때론 하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다. 너무 가까이 있어, 또 당연히 생각했기에 지나쳐 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고. 병원 일이 바쁘다고, 아픈 환자가 먼저라며 고향 집에 발걸음이 뜸했던 내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 듯하다.

부디 수술이 잘 되고, 또 힘든 치료 기간도 잘 버티내시길, 낯선 병원의 텅 비어버린 복도 끝에서 빌고 또 빌었다.

박관석 보령신제일병원장·내과전문의

## 사설

### 폴란드 정세 변화, K-방산 피해 없게 정밀 대응을

어제 국내주식시장에서 간판급방산주들이 출렁거렸다. 폴란드 정세의 불똥이 될 공산이 없지 않다는 투자 전망이 작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과 같은 종가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전일보다 4.04%까지 떨어졌다. 현대로템 종가는 4.28% 하락했다. 한국항공우주(KAI)도 활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폴란드 정권 교체가 나비의 날개 역할을 했다. 폴란드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연합을 이끌며 8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총리 지명을 확정했다. 새 정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노선을 택하게 마련이다. 투스크는 지명 확정 후 연설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야권연합 일원인 시몬 호위브니아 하원의장이 전날 민영방송에서 “(전임)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장관 내정자는 10월 총선 이후 정부 체결 계약들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투스크보다 한술 더 뜨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EU는 쌍수를 들어 새 정부를 받는다. 친EU 성향으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투스크 총리 지명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더 정교하고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한국-폴란드의 방산 계약과 양국 협력 시스템이 투스크가 ‘바로잡을’ 대

상에 포함돼 있고 ‘분석과 평가’를 거쳐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다면 매우 거북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

로이터통신은 우리 방산 수출에 정세 변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어제 주식시장 동향으로 미루어 국내외 투자자들도 유사한 관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업계가 가볍게 여기다간 화를 부르는 격이 될 수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할 일이다. 방산 분야는 특정 제품의 가격·성능 경쟁력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 등도 총동원되는 무한경쟁의 각축장이란 점도 명심할 일이다.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리 안보자산도 필요하다면 적절히 활용돼야 한다.

폴란드는 군·무기체계 현대화 등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더 적극적이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경전투기 FA-50,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사들였다. 계약 규모는 124억 달러(약 17조 원)에 이른다. 폴란드는 ‘K-방산’의 큰손인 것이다. K-방산의 유럽 교두보라는 의미도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K-방산은 실제 반도체를 잇는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폴란드 정세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180도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낙관론만 앞세워 계제가 아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의 갈림길이 저 앞에 있다.

## 중국 소비, 지금이 바닥이다

### 플러자

최의현  
영남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2023년 한 해 중국에서 들려오는 경제 소식은 대부분 우울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된다는 토막뉴스만 나와도 증시가 들쭉날쭉했고, 미국 경제와 동조화 된 많은 국가도 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 탈동조화에 성공해서인지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작년 이맘때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미국과의 대립이 얽려되기는 했지만, 제로 코로나의 종료에 따른 ‘보복 소비’를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었다. 그 기대는 올해 1분기부터 보기 좋게 깨졌다. 중국 경제 성장의 23%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그 원인이다. 남아도는 새 아파트, 썰렁한 신축 공항 등이 중국경제의 급성장을 싹기루처럼 보이게 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120 정도를 유지하던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최근에는 90에도 못 미친다. 그래도 중국 소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는 없다. 충격에 대한 과도한 반응, 금년도 중국 소비는 아래쪽으로 오버슈팅(overshooting) 되었다. 내년도 혹은 그 이후 중국 소비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McKinsey, 2023. China consumption start of a new era).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약간 앞지른다. 향후 5년간 중국의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소매판매액)는 꾸준히 5%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둘째, 중국 소비자들은 꽤 많은 현금자산을 갖고 있다. 중국의 가계 저축액은 53조 위안, 14억 인구를 생각하면 1인당 3만 8000위안이다. 도시 중산층을 연 가계소득 16만 위안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면 그 수는 2025년에는 2억 명, 2030년에는 2억 6000만 명으로 증가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 중산층 이상에서의 소비가 늘기 시작할 것이다.

셋째, 소비증가는 여행, 외식업, 문화 등 서비스 부문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해외여행을 100이라고 한다면 금년 3월은 18%, 6월은 42% 그리고 9월은 54% 수준이었다. 아직 예년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쯤에는 정상화될 것 같다.

넷째, 상품 소비에서는 업체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해질 것이다. 맥킨지는 자체 조사에서 2023년 판매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26%, 반대로 10% 이상 감소

한 기업이 12%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형 쇼핑 페스티벌인 광군제 기간의 판매액은 작년과 비교해 고작 2% 늘어났다. 그런데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는 20% 정도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내년엔 유명 브랜드의 저가 제품 또는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낮은 제품이 잘 팔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하고, 정부가 신뢰성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비교해 내년도 소비는 그 전망이 조금은 더 긍정적이다.



# SAMSUNG

당신은 하늘을 보세요  
저는 공기를 볼게요

집 안팎 공기를 10분마다 학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맞춤청정 AI+**



\* 맞춤청정 AI+ 학습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꺼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실외 공기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표준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맞춤청정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관련 국제 표준: ISO/IEC 25023:2016) \* 맞춤청정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공지능 설정으로 셋팅 필요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동,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